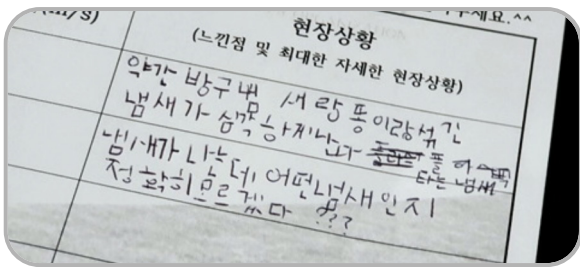


LG화학 과태료 200만원? 숨방망이 보다 더 가벼운 환경법

사)ECO-PLUS21 3년 동안 약 100여 차례 여수산단 중심 대기환경모니터링 진행
환경부 여수산단 기업 8곳 대기오염도 수치 조작 밝혀
여수국가산단 전망대에 대기상태 측정소 설치해 달라,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



LG화학 과태료 200만원, 측정값 조작, 허위성적서 작성 대행업체 영업정지 6개월이라는 처벌을 받아 지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사)ECO-PLUS 21이 3년 동안 약 100여 차례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대기환경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는 가운데 환경부(장관 조명래)와 환경부 소속 영산강유역환경청(청장 최종원)이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측정대행업체 4곳은 (주)엘지화학 여수화학공장, 한화케미칼(주) 여수1·2·3공장, (주)에스엔엘씨, 대한시멘트(주) 광양태안공장, (주)남해환경, (주)쌍우아스콘 등 6곳과 공모하여, 여수산단 등에 위치한 235곳의 배출사업장으로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농도 측정을 의뢰받아 2015년부터 4년간 총 1만 3,096건의 대기오염도 측정기록부를 조작하거나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조작된 상황에 대해 재능기부 환경 모니터 단체인 사)ECO-PLUS21(회장 김영주)를 포함한 여러 시민단체들은 정확한 증거만 찾

지 못하고 있었을 뿐 오래전부터 부정확한 대기측정결과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했었다고 한다.

특히 사)ECO-PLUS 21은 3년 동안 약 100여 차례 여수산단을 중심으로 대기환경모니터링을 진행해오고 있었다. 모니터링은 사)ECO-PLUS 21의 어린이환경지킴이와 회원들을 중심으로 시민들 그리고 학교 동아리회원들과 함께 직접관능법과 측정기를 통한 미세먼지 샘플링 그리고 공기포집기 등을 활용하여 다양하게 진행했다. 참여 패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특히 미세먼지 측정에 있어서 실제 측정값과 기상청 등을 통해 알려진 측정값과는 다소 차이가 많았다고 했다.

모니터링 장소는 객관적인 자료의 수집을 위해 동일한 장소에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는데 이 중 이번 사건에 관련된 주)엘지화학화학공장도 해당 장소로 기록되어 있다. 해당기업에서 모니터링 진행시 발생했던 미세먼지 값과 악취는 날씨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었지만 평균적으로 매우 심했다는 참여 패널들의 의견이 있었다.

사)ECO-PLUS21의 김영주 회장은 “모니터링 장소 중 하나인 여수국가산단전망대에 대기상태 측정



소를 설치해야 한다고 관계기관에 수차례 건의한 바가 있다. 여수시에 존재하는 대기환경 측정소는 주거지역 중심으로 있기 때문에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의 주원인인 산단의 대기상태는 반영되지 않고

시민들에게 전달되고 있다. 이곳은 산단과 주거지역의 마지막 경계에 있기 때문에 유독물질 유출과 같은 만약의 사태에 있어서도 즉각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하며 “이번 사건에 해당된 기업들을 철저히 조사

하여 일벌백계해야 하고 우리지역은 우리가 지켜야하니 앞으로도 회원 및 여수시민들과 함께 여수시 환경을 위한 모니터링 활동을 더욱 활발히 할 것이다.”고 밝혔다.

송영선 기자

문재인 정부 미세먼지 정책과 거꾸로 가는 여수시 공영개발과?

현장 점검 같은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니...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 환경조성”을 약속했다. 최근 정부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1조 5천억원을 추가경정예산 편성한 것도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을 불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국가 정책과 반대로 가는 현상이 있다.

여수 주삼동에 위치한 삼동지구 택지개발 현장에 세류장이 철거된 이후 미세먼지, 비산먼지를 방지하는 살수차 처리 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의혹이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이곳 삼동지구 택지개발 현장은 과거에도 작업차량들이 세류장을 통과하지 않고 흙먼지를 발생하는 민원 고발이 있어 벌금형태로 정리가 된 적이 있었지만 벌금형이 내려진 이후로도 여전히 여수시 관계기관의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정황이 발생되었다.

여수일보는 관계기관인 여수시 공영개발과에 삼동지구 현장 세류장 철거 시점과 살수차 작업과정 기록을 자료요청을 하였다. 공영개발과 관계자는 세류장을 철거한 시점으로는 세류장철거 콘크리트를 실어내는 날짜를 세류장철거 날짜로 알고 있다고 했지만 관리감독자는 현장에 관리감독하러 나간적은 없었다고 말했다.

살수차는 2019년 3월1일부터 4월9일까지 현장내 저수지에서 하루 평균 3회 3시간 동안 작업운행하였다고는 했지만 살수차에 설치되어 있는 GPS 오류로 인해 운행시간과 횟수 등 분석불가'라서 차량번호가 없다는 자료를 받았다. 살수차는 특수차량이라서 GPS가 단통이 가동되어야 하지만 GPS오작동이라는 자료를 믿기 어렵다는 의견조차 제시하지 않은 공영개발과, 관계자는 이 또한 더이상 확인하지 않았고 금강개발업체에서 살수차 작업을 했다면 한결로 알고 있다는 답변이었다.

현장에서 나온 폐기물도 공사업체에서 받은 자료만 받아보고 현장 점검 같은 것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고 말했다.

여수시 기후환경과는 친환경전기자동차와 수소차 보급, 노후경유차 폐차 지원사업, 미세먼지 발생 저감을 위한 시차원의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데 공영개발과는 홀로 다른 정책을 하고 있는건가!

공사완료가 5월이었는데 관리감독이 단 한차례도 없었다니 놀라운 현상이다. 시는 공사업체의 보고만 믿고 안이하게 탁상행정만 한 것인지 의문이 든다.

김영주 기자

전남호국문화 제53회 **여수**

거북선 축제

2019.5.3.(금) ~ 5.5.(일)
여수시일원(이순신광장, 선소)

주요행사
통제영길놀이/ 소동줄놀이/ 드론라이트 쇼/ 고유제/ 개막식/ 독제/ 전라좌수영 수군출정식/ 해상퍼레이드/ 임진유적지 순례/ 여수맛장터/ 체험 및 부대행사/ 매일리테마존(선소)

주최 여수시 사)여수전남거북선축제보존회 주관 제53회여수거북선축제위원회

전남호국문화의 열! 만세 불빛이 되다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전 국회의장) 여수일보 단독 인터뷰

여수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 전달

전 국회의장을 지냈던 정세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지난 19일 2019 대한정형외과 제 63차 춘계학술대회 자문위원회 워크숍을 위해 여수시를 방문하였다. 여수일보를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만나 여수시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들었다.

다음은 정세균의원과의 일문 일답이다.

지난 17일 대기오염물질 측정 대행업체와 짜고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환경부와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지난 17일 대기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와 짜고 미세먼지 원인물질인 먼지·황산화물 등을 속여서 배출한 여수 산단 지역의 기업들을 무더기로 적발한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먼저 정치인의 신분을 떠나 국민의 한 사람으로 분노를 느낍니다. 이번 사태는 여수 산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봐



합니다. 사)ECO-PLUS21 김영주 회장과 회원들이 3년 동안 100여 차례 국가산단 내 환경모니터링을 꾸준히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지역을 지키려고 묵묵히 애쓰는 모습이 진정한 힘을 발휘하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스스로 지키려는 의지를 보여주고 시민 한 분 한 분의 눈을 의식하게 하고 무서움을 느끼게 해

이었습니다. 여수 엑스포 유치를 위한 특위 구성부터 참여하여 산업자원부의 적극적인 지원 요청을 하였습니다. 또한 주요국가 대사관에 파견된 산자부 상무관들을 동원해 여수박람회유치 당 위성을 역설하는 등 여수엑스포를 해외에 적극 홍보하는 역할을 하기도 했습니다.

2012년 여수엑스포 성공 유치를 위해 1조 5000억의 예산을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와 '전수조사' 철저히 실시
사)ECO-PLUS21.. 국가산단 내 환경모니터링 100회
진정한 환경사랑 지역사랑 실천, 여수엑스포장 활용 염려와 관심**

야합니다.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건강을 위해 전국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원인물질 배출농도 측정결과'에 대해 '전수조사'를 철저히 실시해야 할 겁니다.

여수시민들은 이 황당한 사건을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여수시민들과 환경단체들은 이번 사건을 끝까지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국가와 지자체의 할 일이고 책임도 지고 또한 대책 마련을 해야겠지요. 그러나 먼저 시민들 스스로 환경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도 매우 중요

하겠지요. 또한 이번 기회에 유사 산업체 전체를 대상으로 자가측정기 조작 여부 등을 더욱 세밀하게 조사하여 재발 방지를 위한 시스템 개선에 적극 나서 불법배출을 근절하게끔 지속적인 모니터링에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정의원님께서는 여수를 위하여 2012년 여수 엑스포 유치시 절부터 많은 역할을 하셨습니다.

지금도 여수엑스포장 활용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저는 2012년 엑스포 유치시절 열린우리당 당의장

확보하고 전주~ 광양간 고속도로, 목포~ 광양간 고속도로, 익산~순천, 여수~순천 간 복선전철화, 여수~순천간 자동차 전용도로 등 박람회를 위한 SOC관련 국고지원에 힘썼던 인연이기에 엑스포장 활용 방안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여수박람회장 부지에 청소년해양교육원 기공됨을 뜻깊게 받아들이며 국제이벤트를 유치할 다양한 해양교육이 들어설 바

랍니다.

인터뷰 최향란 기자, 사진 김영주 기자

서완석 시의장, 대기오염물질 무단배출 업체 ‘엄중한 처벌’ 촉구

오염물질 불법배출 산단업체, 시민께 사죄하고 책임감 있는 재발방지대책 마련해야

여수시의회 서완석 의장이 192회 임시회 개회사를 통해 대기오염물질 측정치를 조작하고 시민을 기만한 산단 기업들을 향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서 의장은 산단 기업들과 오염물질 측정대행업체가 결탁하고 배출오염물 측정치를 조작한 충격적인 사건에 대해 “여수산단 기업들의 이같은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반사회적인 범죄”라며 “이러한 사실이 급변에 적발되지 않았더라면 여수시민들은 계속해서 발암물질 등 오염물질을 흡입하며 살았을 것”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우리 여수시민들은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외쳤던 기업에 대해 심한 배신감에 경악과 분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이를 적발하지 못한 환경부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전남도의 환경감시 시스템에도 맹점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서완석 의장은 “여수시민을 속이고 기업 이익 올리기에만 혈안이

돼 시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범죄행위를 자행해 온 업체대표들이 시민들에게 직접 사죄하고 책임

감 있는 재발방지대책을 내놓을 것을 촉구했다.

또 산단사업장에 대한 지도 관리권을 갖고 있는 행정당국에서도 해당 업체를 엄중히 행정조치하고, 수사대상에 포함된 모든 업체에 대한 대기오염도 전수조사 실시, 산단 주변 대기 실태조사 및 주민 유해성 건강영향평가 실시, 대기오염물질 총량관리제 조기시행, 악취관리지역 지정을 촉구했다.

특히 “여수시민과 시민환경단체가 현장에서 상시 관리감독할 수 있도록 환경관리관 여수시 이관 등 여수산단 환경관리 시스템 전반에 대한 특별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촉구했다.

덧붙여 “검찰에서도 철저한 수사를 통해 이러한 부정행위가 재발되지 않도록 엄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구했다.

송영선 기자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주최 · 여수시 남해군 광주전남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 주관

‘여수-남해해저터널 조기 추진 대토론회’ 성황

영호남 교류 확대, 지역 균형 발전, 남해안관광벨트 완성 등 사업 필요성 재확인

주승용 국회부의장이 주최하고 여수시 남해군 광주전남연구원 경남발전연구원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해저터널 사업의 조기 추진 필요성을 확인하고 사회적 관심을 모으기 위한 ‘여수-남해 해저터널 조기추진 대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주승용 국회 부의장과 여상규 법사위원장, 여수시장과 남해군수, 이용주 최도자 국회의원과 지역 도시의원, 여수시 남해군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행사는 주승용 부의장의 개회사, 여상규 위원장과 국회의원의 축사, 권오봉 여수시장과 장충남 남해군수의 축사, 주제발표와 패널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주 부의장은 “여수-남해를 교량으로 연결하면 1조 6천억원 이상이 소요되는 반면, 해저터널로 연결하면 30% 수준인 5천억원이면 충분하다.”며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제5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광주전남연구원 조상발 실장과 경남발전연구원 하경준 박사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건설 필요성’과 추진전략, ‘남해-여수 해저터널의 효과 및 시사점’이라는 주



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패널토론에는 전남대 이정록 교수가 좌장을 맡고 국토교통부 장영수 도로국장, 경상대학교 문태헌 교수, 한국교통연구원 유정복 본부장 등 전문가 5명이 함께했다.

패널들은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의지가 중요한 만큼 여수시 남해군의 평가지표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과 지역민의 적극적인 의견 표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시와 남해군은 지난 1998년

여수와 남해를 연결하는 도로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정부에 사업을 건의했지만, 예비타당성조사 경제성 미달로 2006년 제4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에 사업이 반영되지 못했다. 여수시와 남해군은 제5차 국토건설 5개년 계획(2021~2025년)에 해저터널 건설 사업이 포함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최향란 기자

한려동,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선정

잊혀진 도시에서 젊음의 거리 변신 발판 마련
더불어민주당 여수갑지역역, 정부와 중앙당 추가 지원요청 총력전

여수시 한려동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전남도가 평가한 ‘2019년 도시재생뉴딜사업’ 부지로 최종 선정돼 4년간 국비 134억 원을 지원받게 되어 ‘잊혀진 도시’에서 ‘젊음의 열정이 넘치는 거리’로 탈바꿈할 발판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한려동 도시재생사업 선정은 지난 민선 6기 시정이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이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주철현)는 한려동 도시재생사업 최종 선정을 환영하며, 당차원의 지원과 협력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한려동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는 여수시 공화동 707-1번지 일원으로 ‘여성, 청소년과 함께하는 百年再生’을 사업목표로 삼았다. 대상면적은 132,627㎡로 공모유형은 일반근린형(전라남도평가)이었으며 선정액은 134억 원(국비 80,



도비 13, 시비 41)으로 2019년~2022년까지 4년간 정부 예산이 지원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선정된 한려동은 향후 청소년 돌봄주택 조성, 노후주택 및 공, 폐가 정비, 테마거리 조성, 청년몰, 비즈니스 센터 조성, 일거리 창출사업, 마을도서관, 마을박물관, 주민역량강화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한려동은 과거 여수역이 있어 여수시의 관문 역할을 담당했던 지역의 중심 지역이었으나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로 기존 여수 역사가 축소, 이전되면서 잠시 활력을 잃었다. 하지만 이번 사업 선정으로 젊은이들이 모여 다양한 사업을 펼칠 기 좋은 장소로 변할 예정이다.

민선 6기 주철현 시장부는 “초기 한려동 도시재생과 관련 재개발을 계획하였으나, 국내 투자가 어렵고 한려동 주민 다수 의견이 도시재생사업 추진으로 의견이 모아져 국토부가 추진하는 도시재생뉴딜사업 대상지 선정을 목표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려동 주민들과 다양하고 활발한 정책을 추진하여 민선 7기 들어 뜻깊은 성과를 이루냈다.”는 말도 함께 했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는 한려동이 그늘진 도시 이미지를 벗고 여수를 대표하는 젊음의 도시로써 변신하는 기틀을 마련하게 될 수 있도록 민선 6기 주철현 시장부에서 추진한 광림동, 충무동, 문수주택단지과 한려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대해 정부와 중앙당에 보조금 등을 대폭 추가 증액으로 강력히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도시재생사업은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로 전국의 낙후 지역 500곳에 매년 재정 2조 원·주택도시기금 5조 원·공기업 사업비 3조 원 등 5년간 총 50조 원을 투입하는 도심기능 재창 사업이다.

이규원 기자

여수시 의원 조레 발의

1. 전정곤 시의원, 여수 지방대학 인재육성 지원 조례 발의

여수시의회 전정곤 의원이 지역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성하기 위해 여수시 소재 지방대학의 지원을 늘리는 조례안을 발의했다.

전 의원은 “자금의 지방대학이 처한 현실은 고등학교 졸업생 수가 매년 감소하는데 지역의 우수인재까지 대도시 지역 대학에 쏠리고 있는 실정으로 존재의 위기라는 말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라며 “지역대학의 자체 경쟁력을 높여 지역출신 인재의 유출을 막는 게 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되었다”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또한 “이번 조례의 제정으로 지자체와 지역 대학, 지역 기업들이 일체가 되어 우리 학생들의 지역내 취업으로까지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지난 2월에 발의돼 이번 192회 임시회에서 다루기로 결정되면서 오는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의 사전심사를 거쳐 내달 3일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2. 고용진 시의원,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 발의

여수시민이 삶의 마지막 순간까지 인생을 아름답게 정리할 수 있도록 인

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기 위한 ‘웰다잉(Well-Dying) 문화조성’ 조례가 발의됐다.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은 “아끼없이 살아온 인생을 존엄하게 마무리하는 품격 있는 문화도시를 조성하기 바란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설명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유언장이나 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조례안에 따르면 시장은 웰다잉 문화조성을 통해 존엄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유언장이나 자서전 작성 등 삶을 정리하는 문화 확산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한편 웰다잉 문화조성 조례안은 지난 24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거쳐 5월 3일 19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3. 고용진 시의원, 4차 산업혁명 촉진조례 제정

여수시의회 고용진 의원은 지역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혁신성장을 통한 지역경제의 지속발전과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여수시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여수시는 4차 산업혁명과 신산업 육성 지원을 위

한 종합적인 전략 수립, 국내?의 환경변화, 성장 전망과 추진방향 육성시책 등 관련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

고용진 의원은 “여수시가 4차 산업혁명시대에 발맞춰 선도적으로 관련 사업을 유지해 선점해 나가길 바란다”며 “이러한 우수정책 지원은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하고 지역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견인할 것”이라며 강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여수시는 지난 1월 민선 7기 첫 조직개편을 단행해 지역경제과에 미래대응팀을 신설해 4차 산업 등 미래사회에 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 촉진 및 신산업 육성?지원 조례안은 26일 소관 상임위인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5월 3일 마지막 본회의서 최종 의결될 전망이다.

최향란 기자

<전라남도의회 의안정보>

1. 민병대 도의원 대표발의: 전라남도 민원 매신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동발의 : 강문성도의원, 이광일도의원, 강경희도의원, 최병용도의원, 최무경도의원

발의연월일 : 2019.4.1.

제안이유 : 민원 매신저 공개모집으로 선발하여 매신저 위촉에 대한 행정의 투명성 확보와 인원 증원을 통해 전남도정 현안에 관심있는 도민 행정참여도를 높이고자 함 -원안가결

개정내용 : 민원매신저 공개모집방법 구체적으로 매신저 위촉사항 행정의 투명성 확보, 남원 매신저 수 한 150명에서 300명으로 증원 도민관심유발 촉진 및 행정 참여도 기회제공, 해촉시에는 민원매신저 범위 구체화 등 관련규정 강화, 범죄행위, 품위손상, 사적이익추구 물의 등 규정, 그 밖의 조문은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게 띄어쓰기 등 정비.

2. 최무경, 강정희, 강문성 공동 발의: 전라남도 경제민주화 지원 조례안

발의 연월일 : 2019. 4. 1

제안이유 :도내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고 경제주체간 갈등 해소와 협력방안을 모색함으로써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공정한 삶의 가치가 실현되는

사망 중심의 전라남도으로 거듭나고자 함. -원안가결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상생과 공정 및 노동권 보장을 위한 실천과제의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전남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도내 중소기업의 육성과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등 「지방자치법」제9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지방사무로서 도내 지역경제 활성화와 차원에서 정책수립 등을 마련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각 조문의 내용은 특별한 위법사항이 없다고 판단. 전남의 경제민주화 정책 추진은 상생·공정·노동권보호를 통해 포용성장을 위한 공동협력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중요성이 인정되고 입법의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함.

오은진 기자

권오봉 여수시장, 공약실천계획 ‘최고등급’ 달성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전국 226개 지자체 평가 권오봉 시장 “관련 사업 성실히 이행할 것”

권오봉 여수시장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가 선정한 공약실천계획을 가장 잘 만든 자치단체장에 선정됐다.

매니페스토본부는 지난 2개월 간 서면자료와 시·군·구청 홈페이지 자료를 바탕으로 전국 226개 자치단체의 선거공약 실효성과 실천가능성, 연차별 이행로드맵과 재정계획 등을 진단했다.

평가항목은 ▲종합구성(45점) ▲개별구성(20점) ▲민주성·투명성(20점) ▲웹소통(15점) ▲공약일치도 등 5대 분야 32개 지표였으며, 득점에 따라 전국 지자체를 5개 등급(SA, A, B, C, D)으로 분류했다.

이번 평가에서 여수시는 80점 이상을 획득해 최고(SA) 등급을 받았다.

여수시는 민선 7기 공약실천계획서에 ‘시민과 함께하는 해양관광 휴양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하고 ▲시민공간 감동시장 ▲균형있는 상생경제 ▲사람중심 나눔복지 ▲품격있는 문화관광 ▲살기좋은 정주환경 등 5대 분야에 98개 공약을 담았다.

주요 공약으로는 열린 시민 청원제도, 미래발전위원회 구성, 경도·화양지구 조기개발, 여수 시립 박물관 건립, 여수세계 석박람회 유치 등이 있다.

시는 지난 1월, 민선7기 시장 공약사업 관리계획 수립했다. 이를 통해 관리카드 정비, 공약예규 제정 등 공약이행 기반을 다졌다. 또 시청 홈페이지에 공약사업 현황을 21개 메뉴로 공개하고, 자유의견방도 개설했다.

권오봉 여수시장은 “시민과 소통하는 공약체계를 만들고자 노력한 점이 좋은 결과로 이어졌다”며 “공약은 시민과의 약속인 만큼 추진현황을 시민과 공유하고 관련 사업이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규원 기자



여수산단 대기오염도 조작사건 ‘향후대책 발표’

26일 市입장 발표, 민·관 협의체 구성해 종합대책 시행 전남도와 함께 대기배출사업장 특별점검…강력한 행정처분 예고

여수시(시장 권오봉)가 26일 여수국가산단 업체 대기오염물질 배출 농도 조작 사건에 대한 향후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시는 ‘이번 사건으로 큰 충격과 분노에 휩싸인 시민 여러분께 심심한 위로를 드리며, 여수시 또한 이번 일을 매우 유감스럽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여수국가산단 대기배출사업장 중 환경오염시설 1~2종(63개) 사업장은 전남도가 관할하고, 3~5종(96개)은 여수시가 관리하고 있다’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과 검찰 수사 결과 3~5종 사업장이 위반 업체에 포함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 조업정지 20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여수시 전라남도 영산강유역환경청이 여수국가산단



주변 대기 실태조사와 유해성·건강영향평가 진행 등 9개 안에 합의하고 공동 추진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지역주민, 시민단체, 학계, 기업체, 도·시·의원, 행정기관 등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민관 협의체를 구성해 종합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여수국가산단 주변 대기질 태조사와 주민 유해성·건강영향평가를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시민 불

안을 불식하고 후속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여수시는 ‘이와 별도로 여수시가 단속권한을 가진 3~5종 사업장 96개소에 대한 추가적인 특별점검을 진행하고, 대기 배출 허용기준 초과 의심 사업장에 대한 오염도 조사와 함께 위반사업장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병행할 방침이다’고 언급했다.

이규원 기자

여수지역신문협회 최우수 광역의원 선정

강정희 도의원, 2019 지방자치 의정대상 수상



전남도의회는 강정희 도의원(시전·둔덕·주삼·삼일·묘도동)이 여수지역신문협회가 선정한 최우수 광역의원으로 선정돼 ‘2019 지방자치 의정대상’을 30일 수상한다고 밝혔다.

여수지역 언론인 여수신문, 남해안신문, 동부매일, 여수뉴스타임으로 구성된 여수지역신문협회는 올해 접수된 의원들의 공적 조사를 바탕으로 개인 공적, 업무추진력, 정책제안 등 3개 항목을 평가해 수상자를 선정했다.

“지방자치 의정대상”은 생산적 의정활동을 유도하고, 주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의원상 정립을 위한 취지로 마련됐으며 최우수 광역의원 1명, 최우수 기초의원 1명과 우수 기초의원 2명, 최우수 국회의원 1명을 선정하며, 올해로 2회째를

맞고 있다.

강정희 의원은 특히,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 5분 자유발언 등을 통한 도정과 교육행정 전반에 걸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제10대 전남도의회 의원 중 최다 질의 의원으로 등극했다. 강 의원은 제11대 경제관광문화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도, “전라남도 사회적인자리 조례, ‘영산강유역 마한문화권 개발 및 지원을 위한 고대문화권 특별법’ 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 등 도민의 일차리와 경제,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의정활동을 펴고 있다.

특히, 강 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앞장서고 있다. 또한,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 관련 사업, 국제컨벤션터 건립과 UN기후변화당사국총회

민주당 여수갑 도시재생특위 출범

정부 국정과제에 맞춰 도시재생특위 발족…강문성 도의원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위원장 주철현)가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 문제에 대해 적극 대처하기 위해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켰다.

더불어민주당 여수(갑) 지역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24일 오후 여수시의회 소회의실에서 당 소속 시·도의원 및 당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재생특별위원회’(이하 도시재생특위)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도시재생특위는 주철현 지역위원장, 강문성 도의원, 백인숙·강현태·김승호·이미경 시의원 등 도시재생 사업지구로 선정됐거나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 지역 시의원과 민간위원 등이 참석했다.특위는 강문성 도의원을 위원장으로, 김승호·강현태·이미경 시의원을 부위원장 등으로 각각 선출하고 민간위원들과 함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위원은 임사규, 이성현, 김건두, 정복순, 김경수, 최상철, 김병국, 강득환, 진명숙, 정승화, 박숙희, 정동진, 오재환, 박승, 서대현, 장선식, 정진철, 정현보, 손성혁, 박성일, 유한국 등 특위는 총 25명으로 구성됐다.특위는 앞으로 도시재생 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용해 도시 경쟁력을 높일 정책을 마련한 뒤 채택된 의견안을 여수시와 전라남도 정부와 중앙당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주철현 갑 위원장은 출범식

에서 “여수 원도심이 중심인 민주당 갑 지역은 도시재생사업이 당의 핵심사업이다”며 “낙후된 원도심을 활기 넘치고 편안한 도시로 만들고 소득창출까지 이어지도록 만드는 일이 당의 역할이다”고 말했다.

강문성 특위 위원장도 “올해 한려지구가 도시재생사업 대상지로 선정돼 여수세계박람회 이후 침체됐던 원도심이 다시 활기를 찾게 됐다”며 “중앙당에 적극 제안해 여수가 도시재생사업의 으뜸 지역으로 발돋움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문재인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 중 하나인 도시재생사업은 전국 규모에 따라 ▲우리 동네살리기, ▲주거복지지원, ▲일반근린형, ▲중심시가지형, ▲경제기반형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추진되고 있다. 민선6기 주철현 시장부는 광림동, 충무동, 문수주택단지과 한려동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이규원 기자

여수유치 건의 활동 등 지역구 현안해결에 의정활동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강정희 의원은 “도민들과 소통을 최우선으로 지역 현안에 대해 간단

히와 토론회자리를 자주 갖고 있다”며 “도민 옆에 든든한 도의원으로 최선의 의정활동을 다 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최한란 기자

여수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추진

여수시의회(의장 서완석)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권고한 지방의원 겸직신고 강화와 영리거래 금지적극 운영, 겸직 등 금지규정에 대한 관리와 통제체계 구축에 대해서 이를 전부 반영하기로 결정하면서 이번 192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를 다룬다고 밝혔다.

시의회는 의원 겸직 및 영리거래 금지 규정이 포함된 각각의 윤리강령과 행동강령 조례를 하나로 통합하여 국민권익위의 이행요구사항을 반영한 전부개정안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회안으로 29일 발의했다.

기존의 여수시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23개 조항과 윤리강령 조례 7개 조항을 통한 운용하고, 여기에다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통제와 관리 조항을 추가로 신설해 총 49개 조항의 ‘여수시의회의원 윤리

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로 통합 시행될 전망이다. 먼저 겸직신고 관련 규정을 구체화하고 신고내용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겸직신고서 양식을 보완하고, 겸직사실이 없을 경우에도 의원들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겸직사실 없음 내역 확인서’를 제출토록 명시했다.

또한 의원과 지자체와의 영리거래 금지를 적극적으로 제한하기 위해 수의계약제한 대상자 신고의 조항을 신설함에 따라 의장은 연 1회 수의계약체결 제한사항 신고 현황을 점검해야 한다.

이 밖에도 여수시가 출자·출연하거나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 단체, 여수시로부터 사업비, 운영비 등을 지원받는 기관·단체 등 의사결정에 있는 책임자를 관리인으로 규정하여 겸직할 수 없는 관리인의

지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했다.

겸직 등 금지규정에 대한 관리와 통제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관리인 겸직사실이 확인되면 의장이 사임을 권고토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이번 조례안에는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은 물론 공정한 직무수행과 부당이익의 수수금지,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등을 행동강령 내에 세분화하여 규정했다.

서완석 의장은 “시의원은 윤리강령과 행동강령을 엄숙히 준수해야 한다”며 “이번에 심사하게 될 행동강령 전부개정안을 의원의 올바른 행동규범으로 정착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의회는 시의원 행동강령 전부개정 조례안을 내달 3일 192회 임시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최한란 기자

여수시, 제53회 여수거북선축제 성공 개최 총력 '

여수시가 제53회 여수거북선축제 성공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24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권오봉 시장 주재로 거북선축제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행사 준비를 꼼꼼히 살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여수시장, 부시장, 11개 국소단장, 16개 관과소장 등 32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사)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의 축제 준비상황 최종보고, 여수시의 행정지원계획과 프

로그램지원계획 보고, 문제점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무부서인 관광과는 2020년 문화관광축제와 도 대표축제를 목표로 시민 참여와 축제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축제 대표프로그램인 통제영 길놀이의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읍면동 길놀이 경연대회 시상금과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이와 함께 길놀이 연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구간을 서교동 로터리에서 이순신광장으로 축소했다.

거북선과 4차 산업을 연계한 화려한 드론 라이트 쇼를 도입해 축제 선진화를 꾀했다.

여수바비큐와 섬소 패밀리 테마존을 배경으로 드론 100대가 거북선, 첨차진, 해익진, 이순신장군 등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또 주행사장을 이순신광장으로 옮기고 여천 선소원일에 모험등과 가장물을 전시해 축제장 운영의 내실을 다졌다. 특히 주행사장을 방문하지 못한 여천권 주민을 위해 선소에서 버스킹 공연, 드론 라이트 쇼,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눈에 띈다.

김영주 기자

우리 동네 소식



돌산읍: ‘돌산읍민의 날 및 제10회 화합한마당’

주민과 출향인 등 3000여 명 참여…주민 화합, 친목 도모

여수시 돌산읍(읍장 김옥령)이 27일 돌산중학교에서 ‘돌산읍민의 날 및 제10회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돌산읍 44개

마을 주민, 여수시장, 국회의원, 출향인 등 3000여 명이 참여했다.

기념식에서는 시정발전 유공자 등에게 시장표창과 감사패

공로패를 수여했다.

돌산읍 주민을 10개 법정리로 나눠 명랑운동회도 진행했다.

읍민 노래자랑과 경품 추첨 등 주민 화합 한마당 행사가 이어지며 흥겨운 축제로 마무리되었다.

처치며 개최식에서는 유공자에 대한 표창과 장수상, 효행상, 장한어머니상 등을 수여했다.

이어서 OX퀴즈와 댄스경연대회 등 다양한 주민 참여 프로그램을 진행, 2부 행사로 각설이 공연, 주민 노래자랑, 행운권 추첨이 이어졌다.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음료와 떡을 전달했다.

시정동 새마을회는 “앞으로도 매년 정기적으로 시정동 경로당을 대상으로 이 같은 행사를 계속 펼쳐 나갈 것”을 다짐했다.

런됐다.

박형철 시정동장은 “지난 22일 처음으로 현장민원실을 운영해 33세대 134명이 전입하는 성과를 이뤘다”면서 “앞으로도 인구증대 시책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보근 동문동장은 “매년 어려운 이웃을 위해 나눔을 실천하기란 쉽지 않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몃소 앞장서서 실천하고 있는 환경공해추방운동회 호남본부 측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러한 나눔의 자리가 계속 이어지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오은진기자



주삼동: ‘제17회 주삼동민의 날 화합한마당’ 개최

여천초등학교, 주민 500여 명 참여…주민 화합, 친목 도모

여수시 주삼동(동장 장광일)이 27일 여천초등학교에서 ‘제17회 주삼동민의 날 화합한마당’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이권철)가 주관하며, 여수시장, 지역 국회의원과 도·시·의원,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오전에는 풍물, 국악, 자치센터 수강생 공연 등이 펼

시전동: 시전동 새마을회, ‘공경 문화 운동’ 앞장

시전동 관내 30개소 경로당 대상 위문품 나눔 행사

시전동 새마을회(회장 정문수, 박옥자)가 5월 어버이날을 앞두고 시전동 관내 30개소 경로당을 대상으로 ‘공경 문화 운동’

의 일환으로 위문품 나눔 행사를 가졌다.

시전동 새마을회원 10여 명은 이날 경로당을 일일이 방문하며

시전동: 용천꿈에그린@ 입주민 전입 ‘총력’

2단지 입주지원센터 내 경로당에 현장민원실 마련

여수시 시전동(동장 박형철)이 용천꿈에그린아파트 입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전입신고 현장민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장민원실은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 입주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여수시 인구 30만 회복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마



동문동: ‘사랑의 육개장 나눔’ 펼쳐

환경공해추방운동중앙회 호남본부, 어르신 150여 명 참여

환경공해추방운동중앙회 호남본부(본부장 이형은)가 지난 19일 동문동 주민센터 회의실에서 어르신 150여 명에게 육개장을 대접했다.

이날 행사는 롯데캐미칼 후원

으로 마련됐으며, 동문동 통장단과 동 직원은 배식을 도왔다.

식사를 마친 한 어르신은 “혜마다 노인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해 줘서 너무 고맙다”고 말했다.

공부하는 중, 고등학생, 영양실조라니?

“선생님 우리아이가 오늘 학원에 못 갈 것 같아요!”

어느 오후 한 학부모님에게 연락이 왔다. “선생님 우리아이가 오늘 학원에 못 갈 것 같아요!” 참고로 나는 학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영어강사이다. 나는 뜬금없는 학부모님 전화에 “왜요?” 하고 나는 대답을 했다.

학부모님이 말을 이어갔다 “우리 아이가 병원에서 감기뿐만 아니라 영양실조라고 하네요”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했을 때 나는 그 아이가 설마! 영양실조라니! 그래서 나는 그 아이가 학원에서 보냈던 일주일 을 떠올렸다. 그 아이는 학교 끝나면 아이스크림, 햄버거 그리고 라면 등등 인스턴트 음식을 자주 먹었다. 왜 아이가 그렇게 먹는 것에 집착했는지 알게 되었던 순간이었다.

그리고 계속 어머니에 말이 이어갔다. “중학교 선생님 말씀이 요즘 학생들 특히 여학생들이 점심을 자주 안 먹는 아이들이 많다고 하네요. 처음엔 급식지도도 해보았지만 여기저기로 아이들이 밥을 안 먹으려고 빠져나가고 배 아프다고 핑계를 대면서 점심 급식을 피한다고 하네요. 우리 아이도 그중에 한명이라고 하시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고민하시면서 죄송해요 ”하고서 전화를 마쳤다.

그러면 2달 가까이 그 아이는 저녁만 먹었던 걸까? 그것도 인스턴트 식품으로! 한편으로는 아이에게 미안했다. 왜냐하면 저녁이 첫 끼니이자 마지막 끼니인줄도 모르고 저녁 먹을 때마다 빨리 먹고 수업하자고 호통을 쳤던 내 자신을 생각하며 씁쓸하고 그 아이에게 정말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영양가 있는 밥 한 끼라도 사주었더라면 좋을 텐데 하며 아쉬움이 있었다.

한편으로 요즘 중, 고등학생들에게 다이어트는 필요할까? 한참 먹을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다이어트라니? 어떻게 하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들어서 가정의원 전문의에게 의견을 물어보았다.

Q: 중, 고등학생들에게 다이어트는 필요할까요?

A: 다이어트는 필요합니다. 건강을 위한다면 체중이 과해지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위 경우 같은 경우 다이어트를 하더라도 영양실조가 걸린 경우입니다. 반대로 요즘 아이들은 운동도 안하고 핸드폰을 많이 하면서 운동량도 적어지고 반대로 더 먹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도하게 먹어서 쪼는 경우도 있습니다.

Q: 만약 중, 고등학생들에게 다



이어트가 필요하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다이어트를 하려면 생활패턴이나 음식을 조절하면서 해야 하는데 요즘 학생들은 단순히 굶거나 안 먹으면 살이 빠지겠지 생각하며 하기 때문에 영양실조라든지 여러 가지 병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한 끼를 먹더라도 정확하게 먹어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간헐적 단식이라든지 한 끼 다이어트나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한 가지 특화된 것은 없습니다. 이렇게 한 끼를 먹으려면 제대로 먹어야 합니다. 이럴 경우 다이어트를 혼자 해서 어렵고

주변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이럴때면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옆에서 도움을 많이 줘야합니다.

의사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건강한 다이어트는 꼭 필수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학업도 중요하지만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선생으로서가 아닌 한명의 어른으로서 미래의 주역인 아이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도와주어야 하는 것이 도리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시민기자 이정훈

환경오염 따른 기후 변화 지구온난화, 이런 현상 앞으로도 계속...

지구 온난화는 지구의 평균 기온이 점점 높아지는 현상으로, 현재 전 세계의 환경 문제이다.

산업 혁명 이후 인구 증가와 산업화로 많은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증가하고, 계속되는 삼림 개발로 대기 중의 온실가스 농도가 높아지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상승하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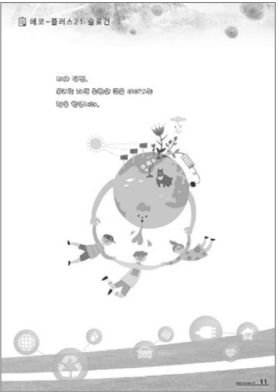
이는 지구의 온실 효과에 의한 것인데 온실 효과란 지구의 복사에너지가 온실 기체에 반사되어 다시 지구로 돌아오는 현상이다.

여수 해안의 해수 표층온도도 해마다 오르고 있는데 특히 여수를 포함해서 모슬포 제주북부 해역과 부산해역 등이 수온이 상승하고 있

다. 이런 수온 상승의 이유는 지구 온난화 때문이라고 한다. 이런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 어획량이 해마다 줄어들고 아열대성 어종이 나타나는 현상이 일어난다.

여수앞바다에 과물물고기 홍투라치가 나타나 큰 화제가 된 적이 있다. 몸은 붉은 돌처럼 보이지만 턱과 등에 더듬이 모양의 지느러미가 있는 물고기로 이는 심해성 희귀종이다. 우리 여수바다가 온대해역에 속한다는 말이 된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환경오염에 따른 기후 변화와 지구온난화가 큰 원인이고 이런 현상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지구 온난화는 극지방의 빙하가 녹어 해수면이 상승시키고, 그에 의해 유발



루, 몰디브 등의 섬나라 방글라데시, 네덜란드 등의 해안 저지대가

물에 잠겨 큰 피해가 생긴다.

또한 대기와 해수의 흐름에 변화가 생겨 태풍, 가뭄, 홍수 등 많은 자연재해 발생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지구 평균의 2배에 달하는 온도변화로 아열대화되고 있다. 또한 해수면 상승은 지구 평균의 3배, 수온 상승도 지구 평균의 3배에 달한다. 이로 인해서 열대야 일수 증가, 여름철 기간 증가, 농작물, 해양생물 등의 변화를 초래하여 우리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연은 늘 우리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자연을 보호하고 친환경 녹색 도시를 지켜야만 인간도 살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한다. 김지웅 학생기자 (구봉중3년)

(주)퓨어코코, Kangsang International 무역유한공사와 MOU...중국진출 청신호 아로마 테라피 활용한 화장품·알레르기성 피부증상 개선, 보습효과

가능성 화장품 전문 제조업체인 (주)퓨어코코(신은경대표)는 지난 4월 10일 광주첨단벤처센터 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 '2019 봄업 코리아 (Boom up Korea) 광주 행사에서 Kangsang International 무역유한공사 (Changging Jingkai Qibo Industrial Co.,Ltd)와 탈모용 비누 20만개를 수출하는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주)퓨어코코는 전남 여수시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입주한 여성청년벤처기업으로 인체에 무해한 친환경 수제 천연비누를 개발하여 업계 최초로 품질경영시스템과 환경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은 유망회사다.



이번 행사는 광주광역시 북구청과 광주전남코트라지원단, 한국산업단지공단 광주전남지역본부 공동 주최로 지역 중소기업의 우수제품을 세계시장에 알리고 수출 확대 지원을 위해 광주첨단클러스터 해외 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 행사와 연계해 진행됐다. 전시회에서 (주)퓨어코코는 전남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으로써 창업초기에 센터에서 열리는 부트 캠프 참여로 수출에 대한 비즈니스 모델을 수립하고, 제품개발에 혼신의 노력을 다한 결과 우수상품 품평회에서 바이어들로부터 큰 호평을 받았다. 이날 MOU를 체결한 Kangsang International 무역유한공사는 중국 충칭에서 25개 브랜드의 자동차매장을 운영하면서 수입 자동차 및 차량용 악세서리를 판매하고 있으며, 연간 매출액이 360억 위안에 300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2018년 설립한 무역회사를 통해 한국의 화장품, 영유아용품, 일회용품, 식품 등을 수입, 유통하고 있다.

(주)퓨어코코는 빠르게 성장하는 천연 화장품 시장을 겨냥해 기존의 아로마 테라피를 활용, 화학 첨가

물 없이 오직 천연재료로만 알레르기성 피부증상 개선과 강력한 보습효과 등 연약한 피부에 안심맞춤인 수제 화장 비누를 개발, 제조 판매하고 있다.

한편 (주)퓨어코코는 지역사회 활동으로 독거노인 섬김과 장애우 감성테라피 교육을 재능 기부와 물품을 기부하고 여수시 드림스타트를 통해 불우학생 부모초청 아로마테라피 교육 및 물품기부를 하고 있다.

박경나 시민기자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 개인전 ‘반야심경’



여수 석천사 주지 진옥스님의 개인전 반야심경이 열렸다. 인도다람살라의 망명정부의 남갈시원에서 20여년 법회를 바른 진옥스님은 이번 반야심경전을 통해 나라를 잃은 난민들이 90살이 다 되도록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열

낭만 피크닉,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봄나들이

2019년 연합모금 “THE Dream 나눔캠페인” 사업으로 중앙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낭만 피크닉을 어르신들과 함께하는 봄나들이를 가졌다.

2019. 4.23.(화) 10:30분에 이순신광장에서 어르신 25명과 인솔자 15명, 총 40명이 집결하여 출발했다.

봄로 사는 어르신들을 모시고 봄나들이 하는 시간을 갖으면서 건강과 안부살피기를 병행하면서 여수예술랜드와 해상케이블카를 즐기며 함께하는 마음을 가졌다.

낭만 피크닉이란 이름에 걸맞게 젊은 청년처럼 말과 맛과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며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할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않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달아나기



라도 할 것처럼, 종달새 울어 대듯 종알종알 하하호호 얼굴이 부서지도록 웃었다.

낭만 피크닉 참 멋진 이름이다.

이번 행사를 기획한 김은숙 팀장님과 김경란 담당자님에게 수고의 박수를 보내린다.

온화하면서 순백한 백팩같은 두 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다.

백합은 영어로 뫼예요. 릴리라고 말하면 음률이 맞춰 릴리야 릴리 릴리 맘보 라고 대답해 주고 싶다.

최정규 시민기자

학교 주위 어디가 길이고 어디가 쓰레기장인지...

무선지구에 위치한 무선초등학교 주위의 모습이다. 학교를 중심으로 남동쪽과 북서쪽, 북동쪽에는 하루 종일 쓰레기로 가득 차 있다. 쓰레기 수거차가 지나가고 한 두어 시간 쯤 지나면 나오기 시작하는 쓰레기들이 아침에 아이들의 등교가 시작 될즈음에는 한가득 쌓여있다.

이렇게 쌓인 쓰레기는 날씨가 조금이라도 더울라치면 악취와 더불어 바람에 날리며 여기가 쓰레기장인지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인지 분간이 힘들다. 아이들이 등교할 때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언제나 한가득 쌓여서 인상을 쓰게 만드는 쓰레기 더미이다. 더군다나 학교 앞은 원룸이 8채나 들어서기 시작해서 곧 입주자가 시작된다. 공사 중 자재와 공사 차량, 공사인부들로 인해 학교 앞은 운룡 아수라장이었고 이제 곧 입주가 시작되는 원룸으로 인해 쓰레기더미는 더 쌓일 것으로 예상된다.

깊은 생각과 배려없이 자기 집 앞만 아니면 된다 라고 버리는 쓰레기더미에 아이들의 학교생활이 불쾌하면 안 될 것이다.

김현아 시민기자



여수 YMCA 아گی스포츠단 가족과 함께 하는 ‘생명밥상’ 운동

바른먹을거리 운동, 공장과자 안먹기 캠페인 진행 몸과 마음을 해치는 공장과자를 먹지 않아요!



여수YMCA 아گی스포츠단은 4월 15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 동안 공장과자안먹기 운동을 전개했다.

공장과자의 유해성을 알리고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먹을거리에 대한 운동으로 교실에서 공장과자안먹기 서약식을 시작으로 공장에서 나온 과자와 가공식품에 포함된 각종 첨가물의 위험을 피부로

깨닫기 위한 여러 가지 실험과 거리 캠페인(7세반)을 4월 19일(금) 오전 10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시청~ 거북공원 일대에서 진행하였다.

이번 운동은 전국YMCA 아گی스포츠단에서 어린이들의 건강한 몸과 마음을 위하여 신체활동뿐 아니라 먹을거리 교육이 우선임을 깨닫

고 특히 영지 교육과정과 더불어 생활운동 차원으로 접근한 프로그램이다.

외부 견학이나 체험활동 참여시 어린이들이 준비해오는 간식을 탄산음료나 인스턴트가 아닌 물과 제철과일, 고구마, 감자, 옥수수, 삶은 달걀 등 자연식품으로 먹을 수 있도록 꾸준히 지도하여 왔고 유기농 음식을 실시하였다.

YMCA관계자는 “몸과 마음을 해치는 공장과자를 먹지 않아요!! 라는 구호아래 공장과자 가운데서도 특히 어린이들이 문제를 인식하지 못하고 쉽게 주위에서 먹게 되는 과자류, 사탕 젤리류, 청량음료 등에 대한 정신적, 육체적, 유해성에 대해 부모와 함께 깨닫고 먹지 않도록 하면서 더 나아가 자연에서 나는 먹을거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하는 것이 이 운동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장과자안먹기 운동은 매년 학부모님과 함께 하는 체험행사와 거리 캠페인의 교육활동을 반복하여 진행한다.

오은진기자

베트남에서 온 친구 잔반을



베트남에서 온 외국인 근로자 잔반을 한국에 온지 8년이 되었다. 8개월 전에 아내와 두 딸 장미와 민트도 한국에 들어와서 함께 생활하고 있다.

잔반은 한국에 와서 돈을 벌고 지금은 아내와 귀여운 두 딸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음에 매우 감사하여 글로벌봉사를 열심히 하는 길이 고마움을 표현하는 길이라 여기고 매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외국인이라서 혜택을 받을 수 없는 학비 문제 등 어렵고 힘든 부분도 있지만 주위에 많은 분들의 도움과 사랑이 있어 행복하다고 말한다.

잔반은 한국 귀와 신청을 해놓고 서류 심사는 통과된 상태다. 앞으로 남은 면접심사에 잘 통과하여 가족과 함께 한국에서 쫓살수 있길 바란다라고 했다.

최은영 시민기자



<맛.맛.맛> 거기 가봤어요?

가성비 좋은 식당 ‘국가대표’ 맛,친절, 청결 모두 착한 식당

여수 선소 근처에 있는 9가지 고기가 무제한 리필이 되는 맛도 착하고 가격도 착한 ‘국가대표’를 다녀왔다.

성인 1인 가격이 11,900원인데 9가지 질 좋은 돼지고기와 소고기, 햄, 만두, 치즈떡 종류도 다양하다.

더, 더, 좋은 점은 소주 맥주 수입맥주까지 모두 2,000원이다니, 정말 놀라운 가격이다.

분위기도 좋고 깔끔하며 직원들도 친절하다.



콩나물, 깻잎, 파절이, 양념장4가지가 기본반찬으로 나오고 나머지 다양한 고기와 야채, 버섯 등은 셀프~

오수연 시민기자

여수시의원 공직 선거법 위반 2명, 의원직 상실 위기

김승호 벌금 700만원, 고희권 징역 8개월 구형

검찰이 지난해 6.13지방선거 과정에서 노태봉사단에 후원금을 기부한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여수시의회 김승호의원에게 벌금 700

만 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해 여수시의회 고희권의원에 대해서도 징역 8개월을 구형한 바 있어 여수시의원 2명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놓여있다. 고희권의원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선거구민에게 이자를 받지 않고 2500만원을 빌려주

며 이자 상당액을 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희권 의원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은 다음달 2일이며 김승호 의원은 23일이다.

공직선거법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 무효가 된다.

이규완 기자

여수해경 양귀비, 대마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

4월-7월, 3개월 간 마약류 약물범죄 강력 단속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4월부터 7월 10일까지 3개월여에 걸쳐 국제여객선과 외항선 등 해상을 이용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 및 도서 지역에서의 양귀비·대마 밀매·밀 경작 등 마약류 약물 범죄 특별단속을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여수해경에 따르면, 최근 강남 클럽에서 조직적인 마약류(GHB) 유통 루악 후 성폭력 등 마약류 약물 이용 범죄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특히, 도서 지역에서 양귀비·대마를 불법 재배하는 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마약류 공급 원천 차단과 안전한 사회 도모를 위해 전방위 단속에 나설 방침이다.

중점 단속 내용으로는 GHB(물병) 및 필로폰 등 마약류 약물 범죄, 양귀비 밀경작 및 야편 밀조, 밀매·투약자, 대마 밀 경작 및 밀매, 투약·흡연자,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유통 등

관련 사범이다. 해경 관계자는“마약류를 상습으로 섭취한 경우 뇌신경 마비로 조현병을 일으키고, 중독 현상을 일으켜 생명의 위협을 초래”하고 있으며, 최근 마약류 관련 범죄가 커다란 이슈이고 국민적인 관심이 크기 때문에, “특별 전담 단속반과 형사기동정 및 항공기를 동원하여 양귀비·대마 등 밀 경작 우려가 있는 관내 16개 도서 지역을 대상

으로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여수해경에서는 최근 2년 동안 관내 도서 지역에서 적발된 양귀비·대마의 무단재배는 총 19건에 이르러 있으며, 양귀비·대마를 불법 재배하거나 밀매 또는 사용한 경우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김영주 기자



여수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여수경찰서 여수국가산단 유해화학물질 불법 운반차량 합동 특별 단속

무허가 운반,운반계획서 제출, 방제장비 비치 유무등 중점 단속 유해화학물질 불법 운반 의심차량 9대 조사 후 법적조치 예정

여수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환경팀은 최근 3년간('16년~'18년) 여수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관내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중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의한 사고가 28건(약 18%)으로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수준으로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에 의한 화학재난 우려의 문제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4일 여수국가산단 주 통행로 4개 지점에서 유해화학물질 불법 운반차량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 결과 무허가 운반, 운반계획서 제출 여부, 방제장비(비치 여부 등 관련법 위반이 의심되는 단속된 운반차량 9대를 조사 중이며,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적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여수화학재난합동방제센터 관계

자는 “특별 단속 조사결과 관련법을 위반한 것으로 최종 확인이 되면 운반업체와 운전자에 대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를 보완한 후 관련법에 따라 사법조치 의뢰 및 행정처분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아울러 “유해화학물질 운반차량이 도로위의 흉기로 둔갑되지 않도록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진행하여 국민안전 및 화학사고 대응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최현찬 기자



시민의 목소리 (호국로기)

여수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홍보 ‘박차’에 대한 시민 한 사람의 의견

나는 여수석보 자리에 위치한 석창사거리 불법 주차 위치를 알리고자 한다.

어떤 특정 회사에게 이익을 주는듯한 의혹이 있다면 시에서 이 의혹을 해결해야한다고 여긴다.

여수시가 지난 17일 언론보도를 통해 이번 제도를 시민에게 알렸다.

18일부터는 교차로, 시청 청사 외벽, 자동차 전용도로 육교 등 48개소에 현수막을 내걸었다.

30일에는 시청 앞 로터리에서 불법 주 정차 근절 안전다짐 대회도 추진하고 5월 초에는 소화전

시설 98개소에 대한 적색표기 설치공사를 진행해 경각심을 높일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방송 매체, 버스승강장, 전광판, 시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한 홍보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불법주차로 인하여 불편해소를 위한 여수시의 행정도 소중하다고 생각한다. 아울러 어떤 특정 회사에 이익을 주는 불법주차 근절에도 힘써주길 바란다.

여수시민 홍경순

여수해경, 지역 해양오염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대형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 대응 위한 협업 체제 구축

중요 해양오염사고 발생 시 긴급 방제 조치를 위해 유관기관과 단·업체 간 협력체제 구축 및 방제에 필요한 지원·협조 사항 협의를 위한 정기회의를 시행했다.

여수해양경찰서(서장 장인식)는 “30일 오후 2시 청사 3층 대강당에서 전남도청, 여수지방해양수산청, 전남대학교 등 19개 유관기관과 단·업체가 참석한 2019년 여수지역 해양오염 방제대책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정기회의에서는 2019년도 해양오염 사고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사고 시 효율적인 방제대책본부의 운영 및 해양·해양오염 방제 조치 지원방안 등에 대해 토론을 진행했다.

또한, 관계기관의 임무와 역할을 재점검하고, 지역긴급방제실체계

수정사항을 심의·의결하며, 관내 해양오염사고 초동대응력 강화를 위한 공동 방제 대응 협력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해경 관계자는 “관계기관 및 단·업체 간 정보 공유 등을 통해 해양방제 책임기관의 대응 능력과 역할을 강화하고, 해양오염 발생 시 국가방제 총괄기관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방제대책협의회는 기름 등 오염물질로 인한 대규모 해양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원활한 방제대응 협력체제 확립을 위해 여수해양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지자체, 해양수산청 등 관계기관 및 단·업체, 지역 시민 대표 등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협의회이다.

최현찬 기자



현장취재

신기아파트 2단지 뒷길 비탈지고 위험한 전라선 옛 철길 공원 진입로 예산 지원 확정 민원해결



여수일보가 67회에 현장취재 보도가 나갔던 신기아파트 1,2단지 뒤로 전라선 옛 철길 공원 진입로, 이곳은 다른 진입로에 비해 비탈지고 위험하지만 예산 부족이라는 이유로 주민들의 민원이 해결되지 않아 원성이 높았던 곳이다.

여수시의회 정경철 의원의 거듭되는 건의로 4월 26일 좁고 위험한 경사의 진입로 예산 지원이 의결되었다.

정 의원은 평소 신기지역 주민들의 민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적극 건의하였으나 순위에 밀려 무산되어 아쉬워하던 중, 여수일보의 현장취재와 시민들의 민원에 힘입어 지난 26일 신기2차 뒷길에 예산 지원확정을 받아냈다.

김영주 기자

정 의원은 “신기1,2단지 뒷길을 직접 올라가 보니 경사가 좁고 험난함을 스스로 느꼈기에 이번 진입로 예산 지원해결이 참으로 흐뭇하다.”라고 말하며 “시의원은 주민들의 소리에 귀 기울이고 발로 뛰는 의정을 해야 한다. 지난 1년간 남만포차 운영자 선정과정 특혜 의혹과 여천 부영아파트 부실문제, 신기부영 3차 act 등 활동이 많았다. 이번 신기 아파트 2차 철길공원 진입로 확장이 오래 기약에 남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관계자는 신기2차 뒷길 진입로는 여수시 건설과 지역개발팀으로부터 1차 추경 3천만 원이 반영 된다고 밝혔다.

당신의
좋은날

MG 새마을금고

암보다 무서운 치매!!
준비하셨나요?

나이 들수록 약해지는 뼈!!
골절진단금도 드립니다!

※ 행사기간(4월 8일~5월 7일) 중 상담 및 가입하시는 모든 분께 푸짐한 선물을 드립니다.

• 치매진단비 1천만원

• 골절진단비 30만원

• 골절수술비 50만원

• 인공관절수술비 100만원

• 비갱신 월 2만원대

• 죽림본점 T. 061-684-2511

• 덕양지점 T. 061-683-9005

• 읍촌지점 T. 061-683-6717

위치: 전남 여수시 소라면 죽림중앙로 30-55(삼일중학교 앞)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여수해수청 해양환경 개선 ‘여수구항 오염퇴적물 정화사업’

착수보고회 개최 이후 본격 정화사업 추진



여수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재철)은 여수구항 및 국동항 일원의 해양환경 개선을 위한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위해 지난 4월 23일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여수구항과 국동항은 해수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한 지리적 여건과 육상에서 유입된 오염물질 및 어업 활동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퇴적으로 악취 발생 등 해양지질의 오염

이 심해짐에 따라 지자체와 지역민들이 그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정화사업은 2017년부터 시작되었으나 기재부와 사업범위 등의 이견으로 2018년에 사업이 중지되어 관계기관 및 지역민 등과 함께 노력하여 예산을 확보하고 정화사업을 재개하게 된 것이다.

올해 정화사업은 2년차 사업으로 국동 수협공판장 앞 사업구역의 정화면적 3만㎡, 오염퇴적물 2만4천8

백㎡를 수거하기 위해 20억의 사업비를 확보하였다.

여수해수청 관계자는 “항내 오랫동안 쌓여왔던 오염퇴적물을 제거하여 해양 수질 저질을 정화하는 이번 사업을 통하여,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쾌적한 해양환경을 제공함으로써 명품 해양관광도시의 이미지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주 기자

[농사는 자연이다] <4>

식물은 무엇을 먹고 어떻게 자랄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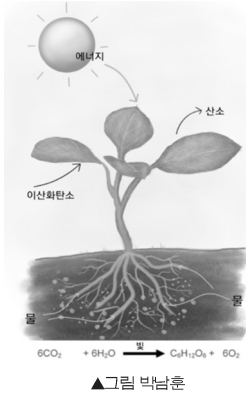
하병안 박사
(경상대학교 학술교수)

네덜란드의 헬몬트는 이와 같은 생각으로 2kg 정도의 버드나무를 90kg 흙이 담긴 용기에 넣어 5년 동안 물을 주고 재배하였다. 5년 후 버드나무 무게는 75kg이 되었지만 흙의 무게는 거의 줄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헬몬트는 식물은 흙을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라 물을 먹고 자란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헬몬트의 실험은 당시 일반 사람들의 고정관념을 깨는 데에는 일조하였지만 식물은 물만 먹고 자라는 것이 아니고 물과 이산화탄소, 빛 에너지를 이용

한 광합성을 통해서 주로 자란다. 식물의 광합성 식은 사진과 같다.

식물은 낮에 이산화탄소, 물, 햇빛을 이용하여 포도당(C₆H₁₂O₆)과 산소를 만들어내는 데 포도당은 다시 물에 녹지 않는 녹말 형태로 전환되어 잎에 잠시 저장된다. 밤이 되면 낮에 저장해놓은 녹말을 물에 잘 녹는 포도당 형태로 다시 전환하여 식물의 체관을 통해 뿌리, 줄기, 열매 등과 같은 각 조직으로 이동시킨다. 운반된 양분은 식물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는 데 이용되거나 식물 몸체 형성하는 데 쓰이며, 남은 양분은 저장기관에 저장된다.

여기에서 광합성 원료 물질만으로는 식물은 자라지 못한다. 뿌리로부터 질소, 인, 칼륨 등과 같은 필수 무기원소들이 물과 함께 식물체 안으로 들어와야 정상적인 생육을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햇빛을 받아 들어 광합성 반



응이 일어나는 엽록소의 분자식은 C₅₅H₇₂O₅N₄Mg으로 탄화수소(C, H, O) 이외 질소(N)와 마그네슘(Mg)이 필요하다. 엽록소의 광합성으로 생성된 포도당(C₆H₁₂O₆)은 뿌리로부터 흡수된 질소 성분과 결합하여 식물 조직의 단백질과 아미노산을 만들어 식물체 안에서 줄기가 성장한다. 아미노산(NH₂CH(Rn)COOH)은 20여 종류(Rn)가 있는데 단백질은 이런 아미노산이 합성되어 만들어진 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아미노산 여러 개가 결합된 것을 폴리

펩타이드라 하며, 이 폴리펩타이드 사슬이 길어져서 아미노산의 단위가 50여개 이상 된 것을 단백질이라고 한다. 따라서 단백질과 아미노산 합성을 위해서는 질소 성분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지구상의 광합성 생물들은 매년 2,500억톤 이상의 탄화수소를 생산하여 지구 온난화 가스인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사람이나 동물들의 호흡에 필요한 산소를 내어주며 매년 전 세계 25억톤 규모의 곡물을 생산하여 인류를 먹여 살리고 있다. 그래서 지구상의 식물이 없다면 지구 온난화 문제와 산소 부족으로 지구에서 모든 생물은 생존할 수 없다.

대기 중에 있는 산소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작물을 키우는 농부는 자연을 통해 농사짓는 것이며 다만 사람은 자연에서 부족한 일부를 채워주고 그 결과물로 농산물 일부를 얻는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농부는 작물 재배를 통해 이산화탄소를 줄이고 산소를 보태주어 이 지구상의 어느 직업보다 귀중하고 소중한 직업이다.

여수시도, 양식업자도, 시민도, 신경 쓰지 않는 소호 디오션 앞갯가 쓰레기

한해광의 <해양바라기>



▲서남해 한해광 센터장

서남해 환경센터 회원들과 해양정화 활동하는 날이다. 디오션 앞갯가, 멀리까지 쓰레기가 널브러져 있다. 다른 날 같으면 생수 페트병부터 비닐봉지, 각종 플라스틱 범벅인데 이날은 유독 페스티로폼이 많다. 대부분 양식장에서 나온 페스티로폼 덩어리와 오래 되어서 작게 부서진 조각들이다. 부피 큰 페스티로폼을 한 곳에 쌓아올리면 다른 회원이 나르고, 작은 플라스틱과 비닐 조각을 주웠다. 모래와 자갈 속에 육수수 알갱이보다 작은 스티로폼 조각들



이 속속들이 박혀있다. 파도 한 방이면 바다로 쓸려 갈 운명들이다.

지난 번 쌓아놓고 갔던 쓰레기 마대가 한쪽 구석에 그대로 처박혀있다.

쓰레기 중에 제일 고약한 놈은 박혀있는 줄이다.

양식장에서 사용했던 원기둥 모양의 페스티로폼은 굵은 나일론 밧줄에 끼워져 땅속이나 바위 사이에 박혀있다. 이런 줄들은 잡아끌어도 꼼짝달싹하지 않는다. 낚으로 밧줄을 내리치며

줄을 끊었다. 부지런히 움직이며 쌓아올린 페스티로폼이 작은 산을 만들었다.

환경과 관계된 것일까?

얼마전 꼬마물떼새가 알을 낳았는데 평소 산란기 보다 빠르다. 정화활동하며 알을 밟을까 봐 내내 조심스러웠는데, 회원 중에 신경질적인 어미 물떼새의 소리를 들었다고도 한다.

우리는 환경 생태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호미와 낚으로 밧줄을 잘라가며 양식장 페스티로폼을 떼어냈다.

제1회 외국인주민 한국문화체험 프로그램 운영

담양 죽목차 체험, 한국 예절 다도법 함께 배울 수 있어 색다른 경험

여수시는 2019년 제 1회『외국인주민 한국문화체험』프로그램을 담양 일원에서 실시했다.

시에서는 관내 제조업체에서 근로하는 외국인근로자 및 매주 일요일 센터의 한국어교육에 성실히 참여한 외국인 40명에게 이번 체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날 행사는 외국인의 한류문화에 대한 수요조사 결과, 가장 선호하는 지역 중 하나인 담양 시티투어 및 다도체험으로 이루어졌다.

미얀마 근로자 톤나잉(남)씨는

“자국에서도 많이 보았던 대나무를 이용하여 이처럼 멋진 도시를 꾸밀 수 있다는 점에 매우 놀라웠다”며 특히 “담양의 죽목차체험은 한국의 예절과 다도법을 함께 배울 수 있어 색다른 경험이 되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관내 외국인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외국인주민종합지원센터를 통해 한국어교육, 상담, 통번역 서비스 및 한국문화체험 등 프로그램을 1년 총 5회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외국인주민은 6,754



명(2018년 1월 1일, 행정안전부 기준)으로, 외국인근로자를 비롯하여 원어민강사, 유학생, 중도입국자

등 다양한 체류자격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다.

최한란 기자

여수 앞 바다에 찾아온 귀한 손님

한해광 기자



알 품은 꼬마물떼새



주택과 도시에서 행복할 권리

주거복지부터 도시재생까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국민 여러분의 주도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도시재생 금융지원

주택분양보증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생활칼럼



한 정 운
변호사

1. 소비자의 권리

「소비자기본법」에서는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소비자의 권리와 책무, 국가와 사업자의 책무, 소비자단체의 역할 등을 규정해 놓고 있고, 소비자기본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소비자의 권리로는, 소비자의 알권리, 선택할 권리, 피해를 보상받을 권리, 의견을 반영시킬 권리,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소비할 권리, 교육받을 권리, 단체를 조직하고 활동할 권리 등이 있다.

2.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철회가능?

소비자의 잘못으로 물건이 손상된 경우, 사용으로 인해 물품의 가치가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시간이 지나면 다시 판매하지 못하는 물품,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등에 대하여 철회를 할 경우 판매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7일 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세일 상품'의 경우 반품불가'라고 고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이 경우 역시 철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3. 반품시 택배비용은 누가 부담?

물품에 특별한 문제가 없이 반품을 하는 경우, 환불거래, 방문판매 등은 판매자가 부담하고, 인터넷쇼핑, 홈쇼핑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물

론, 판매자의 잘못으로 계약을 철회하고 반품하는 경우에는 판매자가 부담한다.

4. 택배를 이용하다 분쟁이 발생하면?

그동안 택배약관은 "과손면책", "손해배상" 조항 등 소비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택배거래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및 소비자권익보호를 위해 다음과 같은 "택배표준약관"을 승인하였다.

- 위탁한 화물이 멸실된 경우 사업자는 그에 대한 실제 피해액을 보상
- 약정 배송시간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 배상
- 사업자가 화물운송중에 기재한 일방적 면책조항 삭제
-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인 경우 사업자의 손해배상이 면책된다 하더라도 고객에 대하여 운임은 청구하지 못하고, 이미 운임을 받은 경우는 환불

봄철 조리된식품보관온도를사수하라!

보건칼럼



김 명 숙
돌산병사보건진료소장

일교차가 커지는 봄철에 조리된 식품의 보관온도를 지키지 않으면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Clostridium perfringens) 식중독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리 식품 보관·섭취 및 개인위생에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은 노로바이러스, 병원성 대장균 다음으로 많이 발생하는 식중독이다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 증상 : 잠복기간은 8~12시간이며, 설사 복통 등 통상적으로 가벼운 증상 후 회복

자연계에 널리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진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는 생장과정 중 열에 강한 포자를 만드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가열 조리로 대부분 사멸하게 되는 병원성대장균, 노로바이러스 등 다른 식중독 원인체와는 달리 조리 후 보관온도 관리가 중요하다.

포자가 남은 조리된 식품을 상온에 천천히 식히면 포자가 깨어날 수 있으며 균이 증식하면서 만들어 지는 독소에 의해 식중독이 발생된다.

※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스 포자는 100℃, 1시간이상 가열해도 죽지 않고 60℃ 이하에서 깨어나 증식하며, 포자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독소를 생성

클로스트리디움 퍼프린젠스 식중독을 예방하기 위한 요령은 다음과 같다.

육류 등의 식품은 중심온도 75℃ 1분이상 되도록 완전히 조리하며, 조리된 음식은 가능한 2시간 이내에 섭취한다.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에는 따뜻하게 먹을 음식은 60℃ 이상, 차갑게 먹을 음식은 빠르게 식혀 5℃ 이하에서 보관한다.

올바른 냉각 방법은 ▲여러 개의 용기에 나눠 담기 ▲싱크대에 차가운 물이나 얼음을 채운 후 큰술이나 배미를 담고 규칙적으로 찌기 ▲급속 냉각장치를 사용하기 등이다.

특히, 뜨거운 음식을 냉장 냉

동고에 바로 넣으면 냉장고 내부의 온도가 상승되어 보관 중인 음식도 상할 수 있으므로 식혀서 넣어야 하며, 선풍기는 먼지로 인한 오염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보관된 음식을 섭취할 경우에는 75℃ 이상에서 재가열하도록 한다.

*식중독 예방 3대요령 : 손씻기, 익혀먹기, 끓여먹기

손 씻기 : 손은 30초 이상 세정제(비누 등)를 사용하여 손가락, 손등까지 깨끗이 씻고 흐르는 물로 헹구세요.

익혀먹기 : 음식물은 속까지 충분히 익혀 드세요(중심부 온도가 75℃(어패류는85℃), 1분 이상)

끓여먹기 : 물은 끓여서 마셔야 해요!

젊은 나이에 공제(보험)를 가입해야 하는 이유

금융칼럼



김 중 열
여수한려새마을금고 상무

경제적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여 두는 제도를 말한다. 새마을금고는 보험을 공제라고 한다. 타 보험회사에 비해 새마을금고 공제의 장점은 무엇보다도 큰 보장과 저렴한 보험료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보험회사처럼 설계사를 통한 영업이 아닌 새마을금고 직원이 직접 공제를 판매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수수료, 판매비, 홍보비 등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다. 이로 인해 보험회사에 비해 공제료가

저렴하다.

공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그중에서도 젊은층, 즉 사회초년생들이 젊은 나이에 공제를 가입해야 할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다.

첫째, 공제를 가입할 때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제연령' 즉, 나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질병이나 여러 가지 사고에 대한 위험률이 낮기 때문에 공제료가 낮게 책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한 살이라도 젊을 때에 공제를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젊을 때 가입하면 할인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저축성상품의 경우에는 적립기간이 길수록 적립금이 늘어나게 되고, 보장성상품의 경우에는 면책이나 감액기준 조건이 있어서 빨리 가입 할수록 제대로 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둘째, 보험이라는 것은 현재를 위한 것이 아닌 불확실한 미래를 담보한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하고 돈을 잘 벌고 있는 지금보다는 은퇴 후 수입이 없거나 훗날 건강을 위해서 또는 재정적인 문

제에 대비해서 적절한 상품에 가입을 해야만 노후에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셋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 까지 피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세금이다. 납입한 공제에 대해 세액공제가 된다는 사실을 대부분 알고 있을 것이다. 보장성보험의 경우 근로자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가 계약자와 피보험자인 보험료를 연 1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대상보험료의 12%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넷째, 우리가 아파서 병원을 가거나 입원을 할 경우 의료기록이 남으면 공제가입이 힘들 수도 있다. 또한, 의료기록이 남으면 지금 즉시 공제를 가입할 수 없으므로 몇 년 후 가입을 하게 된다면 납입하여야 할 공제료가 인상이 되므로 젊고 건강한 지금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이렇듯, 앞으로 다가올 미래의 불확실한 위험에 대비하기 위해 새마을금고 공제에 가입을 적극 추천한다.

의료칼럼



이준형 원장

허리, 무릎, 어깨 전문(자연한의원)

비만(Obesity)은 몸의 지방 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한다.

원인은 아직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나 유전적 요인, 식생활 습관, 생활 습관 등이 주요 원인으로 여겨진다.

증상은 비만은 신체적, 정신적 으로 많은 질병과 문제점을 유발한다. 신체적으로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질혈증, 암, 담낭 질환, 담결석 관절염, 통풍, 폐 질환, 수면 시 무호흡 증후군 등의

발생이 증가한다.

정신적으로는 선입견으로 인하여 자신감 결여, 수치심 등을 느끼고 자신의 체형에 대한 불만족감 등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이는 등 사회생활에서 문제되는 경우가 많다.

치료로는 식사 요법, 운동 요법, 행동 요법, 약물 요법, 수술 요법이 있다.

식사 요법은 열량 섭취를 제한하여 체내 지방을 소모시켜 체중 감량을 유도한다. 산술적으로 일주일에 1kg을 줄이기 위해서는 하루에 1,000kcal를 적게 섭취하여야 한다.

운동 요법은 신체의 열량 소모를 증가시켜 체중 감소 효과를 초래한다.

운동을 하면 우리 몸의 지방 조직은 산화되어 소실되고, 근육과 같은 지방의 조직이 증가하여 체중이 감소한다. 또한 적당한 운동은 식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식사 요법과 병행하면 효과가 훨씬 크게 나타난다.

하루 60분 이상, 일주일에 6~7회 시행하여야 체지방 감소가 일어나고 체중이 감소한다. 한 달에 1kg의 체지방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하루 평균 400kcal 정도를 소비하는 운동이 필요하다.

행동 요법은 자신의 습관을 관찰하고 체중 감량에 좋은 습관을 강화시키는 등의 행동 수정이 필요하다.

약물 요법은 아직 탁월한 효과를 가진 약제는 개발되지 않았다. 최근 몇 가지 약제 사용이 허용되고 있으나 식사 요법, 운동 요법과 함께 체중 감량 프로그램의 일부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체질량 지수가 30 이상이거나 체질량 지수가 27 이상이면 비만 관련 위험 인자나 질환이 있는 경우 약물 사용의 대상이 되고, 식욕 억제제가 주로 사용된다.

수술 요법은 고도 비만 환자에서는 가끔 수술을 시행하여 체중을 감량시키는 방법이다. 소장

이 쓰이며, 수술 후 합병증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에는 비만 환자에서 미용 성형의 한 방법으로 지방 흡입술 등이 사용되고 있으나 일부의 지방 제거만으로 체중 감량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단기간의 체중 감량 계획을 세우지 말고 장기간에 걸쳐 현재 체중의 5~10%를 감량하는 목표를 세우면 성공할 확률이 높다.

예방법으로 비만을 예방하는 데는 식사 조절과 운동이 중요하다. 다양한 체중 감량 프로그램을 활용하고 혼자보다는 함께 노력하는 것이 성공률이 높다. 여러 매체에서 매우 쉽게, 빠른 시간에, 마음껏 먹고 체중을 줄여 준다는 광고 등에 현혹되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각자 자신의 생활 방식이나 식사 습관, 먹었던 음식 종류나 양, 운동의 정도 등을 매일 일기에 꼼꼼하게 기입하여 반성하고 더욱 노력하려는 의지가 중요하다.

기사제보·독자투고 : 061)654-8885, 광고 및 구독문의 : 061)654-8885

2019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인력파견형 구직자 및 구인업체 모집

어제를 잊고 내일을 설계하라! 준비되셨습니까?

시니어

생산물 판매합니다

- ◆천생연분 떡볶이 ◆은도농 도시락
- ◆고소미 참기름 ◆향금 두부
- ◆궁궐드 천생연분 김치
- ◆바다나눔 김부각 ◆여수 꽃빵
- ◆12카페, 카페다시봄

구직의뢰 - 만 60세 이상 어르신 이력서, 참여신청서 작성

구직지원 - 1:1상담 - 구인처 연결, 취업 컨설팅

교육훈련 - 소양교육, 맞춤형 직업교육

취업 - 사후관리

구인업체

어르신채용제 - 만 60세 이상 어르신

구직지원 - 1:1상담 - 구직자 연결, 채용 컨설팅

채용 - 사후관리

모집처종 : 주유원, 경비원, 생산직, 조경, 환경미화원, 주차장관리원 등

일자리를 찾는 어르신과 어르신을 채용하고자 하는 모든 곳 지금 전화하십시오, 바로 연결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전담기관

여수시니어클럽

Yeosu community Senior Club

전화 ☎692-4555/9

팩스 ☎692-4556

모시는길 여수시 연동2길 99

연동2길 99-1

연동2길 99-2

연동2길 99-3

연동2길 99-4

연동2길 99-5

연동2길 99-6

연동2길 99-7

연동2길 99-8

연동2길 99-9

연동2길 99-10

연동2길 99-11

연동2길 99-12

연동2길 99-13

연동2길 99-14

연동2길 99-15

연동2길 99-16

연동2길 99-17

연동2길 99-18

연동2길 99-19

연동2길 99-20

연동2길 99-21

연동2길 99-22

연동2길 99-23

연동2길 99-24

연동2길 99-25

연동2길 99-26

연동2길 99-27

연동2길 99-28

연동2길 99-29

연동2길 99-30

연동2길 99-31

연동2길 99-32

연동2길 99-33

연동2길 99-34

연동2길 99-35

연동2길 99-36

연동2길 99-37

연동2길 99-38

연동2길 99-39

연동2길 99-40

연동2길 99-41

연동2길 99-42

연동2길 99-43

연동2길 99-44

연동2길 99-45

연동2길 99-46

연동2길 99-47

연동2길 99-48

연동2길 99-49

연동2길 99-50

연동2길 99-51

연동2길 99-52

연동2길 99-53

연동2길 99-54

연동2길 99-55

연동2길 99-56

연동2길 99-57

연동2길 99-58

연동2길 99-59

연동2길 99-60

연동2길 99-61

연동2길 99-62

연동2길 99-63

연동2길 99-64

연동2길 99-65

연동2길 99-66

연동2길 99-67

연동2길 99-68

연동2길 99-69

연동2길 99-70

연동2길 99-71

연동2길 99-72

연동2길 99-73

연동2길 99-74

연동2길 99-75

연동2길 99-76

연동2길 99-77

연동2길 99-78

연동2길 99-79

연동2길 99-80

연동2길 99-81

연동2길 99-82

연동2길 99-83

연동2길 99-84

연동2길 99-85

연동2길 99-86

연동2길 99-87

연동2길 99-88

연동2길 99-89

연동2길 99-90

연동2길 99-91

연동2길 99-92

연동2길 99-93

연동2길 99-94

연동2길 99-95

연동2길 99-96

연동2길 99-97

연동2길 99-98

연동2길 99-99

연동2길 99-100



우동식의 <시 읽어주는 남자>

연등

운문사 만세루에 앉아
팔각 세계로 들어온 구름 본다
연등 골조 사이사이 한지 불이고
플이 마르기까지
깊고 어두운 세상을 향해
한 쪽 끝만 맑은 연꽃잎 펼쳐둔다
위에서부터 하나하나
꽃잎 불이는 손가락
허공에서 섬세하다
윗줄과 아랫줄 거리 구름 자리하고
오랜 불면과 베껴대는 그림자는
바람의 손길로 상화하우 살핀다
잃었던 길 된 그라트 돌면서



최형만

오래된 슬픔을 균형 있게 불이고 나면
다시 바람이 되돌아 올 시간 기다린다
연못에 피어있던 연꽃 보이고
세월 흐르고 흘러도 사라진 게 아니라는
소리 듣고 있다
아주 오래전 사천왕상 손에 꽃과 창 쥐어주며
우주사방 지키는 수호신 되어라 명 하였다는
그 소리에 귀 기울인다
한 호흡 잠시 멈추고
꽃잎 반대 방향으로 불이는 초록반침
구름문 활짝 열었나니 마침내 연등을 켜다

/ 詩詩한 이야기 /

연꽃 한 송이 피는 것도 우주 삼라만상이 집중한 것,
연등하나 드는 것도 우주를 밝혀 빛내는 것,

운문사는 경북 청도군에 있다. 운문사 경내에는
정면7칸 측면 3칸의 팔각지붕 우리나라 사찰 중
가장 규모가 큰 건물인 만세루가 있다.

시적인 화자는 만세루 앞마당에서 연등을 만들고
있고 시인은 그 모습을 유심히 지켜보면서 구
도(求道)를 생각 한다

불면과 베껴대는 그림자를 지우고 잃었던 길을
찾고 오랜 슬픔을 견디고 나면

연꽃이 바람의 시간으로 되돌아와 연등이 된다.
여기서 바람은 '바라밀다'로 읽혀진다. '바라밀
다'는 산스크리트어로 완전한 상태, 구극(究極)의
상태, 최고의 상태를 뜻한다.

불교에서는 연꽃을 신성시 한다. 연꽃을 이르는
표현으로 처염상정(處染常淨)이란 말이 있는데 이
는 더러운 곳에 처해 있어도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항상 맑은 본성을 간직하고 있을 뿐 아니라 맑고
향기로운 꽃으로 피어나 세상을 정화 한다는 말로
연꽃을 통해 불교의 진리를 설파 한다.

진흙 곧 사바사계에 뿌리를 두되 거기에 물들지
않고 하늘을 향해 즉, 깨달음의 세계를 향해 피어
나는 속성을 말한다. 2009년 함안 성산산성에서 발
굴된 700년 된 연꽃 씨앗이 꽃을 피웠고 '아리훙
련'이라 이름하여 현재는 그곳에 연꽃테마파크가

조성되어 있다.

실제로 2천년이 넘는 연꽃 씨앗이 발아 된 예를
보면 연꽃은 생명을 비유하기도 한다.

그래서 부처님의 탄생 발걸음에서 부터 좌대에
도 부처님의 설법 연화미소에도 사천왕상의 손에
서도 연꽃이 등장한다. 세월 흐르고 흘러도 사라
진 게 아니라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

최형만 시인은 운문사에서 구름을 활짝 열어젖
히고 마침내 연꽃이 연등이 되어 불을 밝히는 모
습을 노래한다. 어두운 중생들을 향한 구도의 절
정이다. 번뇌와 무지로 가득 찬 어두운 세계를 부
처님의 지혜로 밝혀 비추기를 바라고 따뜻한 마음
이 불빛처럼 온누리에 퍼져나가기를 발원하는 것
이다.

시인은 연꽃 한 송이 피는 것도 우주 삼라만상이
집중한 것이며 연등하나 드는 것도 우주를 밝혀 빛
내는 것임을 시적 메타포를 통해 말하고 있다.

곧 사월 초파일은 석가탄신일이다. 스스로 마음
에 등불 하나씩 준비하여 운문사 숲바람길을 걸어
만세루에 앉아 처진 소나무와 불 꺼지지 않는 연
등을 무심히 바라보고 있다.



우동식

전라도, 점자도서 구입비 2천만 원 지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전라남도는 시각 장애인의 자기
개발과 지식정보 습득 기회 제공을
위해 점자도서관에 도서 구입비 2
천만 원을 지원하고 점자교육 프로
그램도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시각 장애인이 점자도서를 이용
하는 방식은 크게 두 가지다. 도서
형태로 출간된 점자도서를 이용하
거나 일반서적을 점자로 만들 수
있도록 입력한 텍스트파일을 팜하
교와 같은 전문기관에서 출력해 이
용한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일반 점자도
서와 텍스트파일뿐만 아니라 점자
점자문서, 오디오북 등 다양한 형태
의 도서 1만여 권을 비치해 시각장
애인이 도서관을 자주 이용하도록
했다. 이번에 2천만 원을 들여 1천
200여 신규도서를 확충하게 된다.
오는 11월 4일 '제93주년 점자의
날'을 기념해 독후감대회, 점자 빨
리 짝기 대회, 점자 받아쓰기 등
행사를 실시, 시각장애인이 세상과
소통하는 장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병만 전라남도 문화예술과장
은 "도서구입비 지원과 교육 프로
그램 운영을 통해 장애인의 독서문
화 접근성을 높여나가겠다"며 "책
과 점자교육 프로그램이 마음의 눈
을 환히 밝히는데 보탬이 되길 기
대한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시각장애인 점자도서
관은 2006년 시각장애인의 지식 정
보 환경과 독서문화 조성 위해
목포 미항로에 202㎡ 규모 부지에
녹음실, 출력실, 자료 열람실 등을
갖춰 운영하고 있다.

오은진 기자

K-water, 섬진강 유역 물환경 안전망 구축

광양 2 공업용수도 복선화 사업 성공적 마무리, 불안정한 용수공급 문제 해결될 것으로 전망

환경부와 수자원공사는 지난 25
일 섬진강 유역 물환경 안전망 구
축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전남동남권의 용수
공급 안정성을 위하여 실시하였던,
'광양 2복선화 사업 준공'을 기념
하기 위하여 개최된 행사이다. 이
번 행사에 주승용 국무부위원장, 박
하준 환경부 정책국장, 장일종 순
천시 센터장 등 각계 인사 및 지역
주민 등 약 150명이 함께 하였다.

주승용 국무부위원장은 "이번 광양
2복선화 준공을 통하여 용수공급
의 안정화에 더욱 진보하여 기쁘고
안심할 수 있게 되어 무척이나 기

쁘다"라고 말을 전했다.

박하준 환경부 정책과장은 "소처
럼 우직한 결음이 일만리를 갈 수
있다. 그리고 이번 준공이 그 시작
의 발걸음을 갈아 기쁘다" 라고 축
하의 말을 전했다.

K-water 여수권 지사 김영우지사
장은 "이번 광양 2 공업용수도 복
선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됨
에 따라 이 지역의 불안정한 용수
공급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전망된
다"라고 밝히며, " 10시 30분에는
순천만정원 세미나실에서 '지역 물
문제 현안과 대책'등의 과제를 중
심으로 한 '유역 물관리 정책 세미



나'를 통해 앞으로 더 나아가 K-
water의 역할에 대하여 연구와 많
은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규원기자

여수시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한 마음 되는 특별한 하루

여수시 노인복지관은 지난 11일
화화도 꽃밭에서 자원봉사자와 후
원자와 함께 꽃을 눈에 담고 향기
는 품에 안아서 한 마음이 되는
'특별한 하루'를 보냈다.

이 번 행사를 지원한 LG화학
(주), 여천NCC(주), 롯데케미칼
(주)은 지역사회 노인복지 발전과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위해 지원
을 아끼고 있고 특히 이번 나들이는
묵묵히 봉사하는 봉사자들의 노고
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매년 지원
하는 '특별한 나들이'이다.

250여명의 자원봉사자와 후원자
들은 남굴전망대, 사지곶전망대,
순남발원구절초공원, 큰산전망대,
갯넙전망대, 꽃섬다리, 큰굴삼거리
를 지나오며 그동안의 애로사항을

모두 털쳐버리고 여수 꽃섬의 아름
다운 경치를 즐겼다. 여수노인복지
관 직원들은 군데군데 맛있는 간
식, 기분 좋은 간식, 힐나는 간식
등 절절한 간식타임을 만들어 봉사
자들과 후원자들의 피곤함을 덜어
주는 센스가 돋보였다.

약 1시간 30분 정도 돌레길 트레
킹이 끝나고 애립민 야생화공원에
서 점심식사로 도시락이 준비되었
다. 점심메뉴로는 계육볶음과 코다
리썰, 나물과 점 등 이었고 삼삼오
오 둘러앉아 점심식사를 했다.

2부에는 약 두시간 동안 여천
NCC(주)김영곤 봉사자의 사회로
장기자랑 시간과 행운권추첨 등 모
두가 함께 즐기는 오락시간을 펼쳐
졌다. 봉사자로 함께한 김 모씨는



"지나가는 관광객들도 신나게 춤을
추는 등 화화도 전체가 흥에 겨운
시간이 되었다. 오늘 하루가 너무
즐겁고 노인복지관 자원봉사자들
사 행복하다."라고 말했다.

행사를 주관한 김진우관장은 "여
수노인복지관과 세월을 함께한 소
중한 분들, 그러기에 꼭 필요한 분

들과 이런 행사를 함께하여 감사하
다. 이번 행사를 통해 봉사자와 후
원자가 많이 웃고 그 웃음이 행복
의 씨앗이 되어 어르신들께 환한
웃음꽃으로 피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형만 기자

승정현 미용장의 <머리카락이야기>-4

가발도 이젠 패션이다

숱이 많은 머리카락은 이미지
를 한결 돋보이게 한다. 나이보
다 어려보이고 세련되게 보인다.
세월의 완숙이 넘치는 중년이 되
는 것이라지만 자꾸만 벗겨지는
주변머리카락 속알머리를 보면 속
상하지 아니할 수 없다.

머리숱이 적은 고민은 비단 남
성 고객뿐만 아니라 여성고객 역
시 마찬가지다. 간혹 여성고객이
안 어울리는 긴 생머리를 남편이
자꾸 하라고 한다면 어쩔줄 몰라
할 때가 있다. 물론 본인도 어릴
때처럼 긴 생머리가 이미지를 돋

보이게 하고 싶은 것이다. 머리
카락은 얇고 가늘어져 볼륨감은
없고 얼굴에 탄력은 떨어지고 주
름도 늘어나서 긴 생머리를 하면
더없이 초라해 보이니 어쩌란 말
인가!

가끔 그나마 긴 생머리가 잘
어울리는 중년의 멋진 여성분들
도 계신다. 그런분들 역시 2% 부
족함을 호소한다. 그럴 때 머리
위에 가발을 살짝 올려놓으면 신
기하게도 몇 살은 더 어려보이는
효과가 있다.

가발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원

전 323년, 클레오파트라를 만날
수 있다. 프톨레마이오스가 시리
아로 쫓아낸 클레오파트라를 카
이사르가 이집트로 불렀을 때 탐
스런 흑갈색 머릿결과 빛나는 황
금색 화장으로 꾸민 눈부신 아름
다움에 한눈에 반하게 된다. 클
레오파트라에게 왕관을 피찾아
주기 위해 프톨레마이오스 13세
일당을 물리치고 기원전 51년 7
번째의 여왕으로 클레오파트라를
등극시킨다. 고대 이집트인들은
상류층에서만 가발을 사용하였
다.

만약 클레오파트라가 빈모였다
면 어땠을까? 과연 카이사르는
클레오파트라에게 첫눈에 반했을
까? 반하지 않았다면 역사가 바
뀔 수도 있었다. 탐스런 머릿결
에 대한 찬미讚美를 해본다.



짖은 염색을 해야 하거나 머리
카락이 가늘고 얇아 가라앉거나
빈모라면 나에게 어울리는 가발
몇 개로 옷처럼 같이입듯 멋을
부려보면 어떨까?

결혼정보회사

웨드

웨드가 존재하는 이유

더 이상 외로워 하지 마세요!!

가장 많은 남녀 회원이 선택한 웨드가 가장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도

당신을 인도하여 가장 행복한 길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왜 웨드 일까요?

유료회원수

전남 최대 부우로 당신과 어울리는 여성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성공회원수

여수 최고의 성공을 웨드의 자랑입니다.

역사의 규모

1998년 개원 이래 지난 20년간 이 지역 최대의 규모로 성장해 왔습니다.

전문적인 관리

다년간의 경험과 과학적인 매칭시스템으로 당신의 행복을 끝까지 책임지고 찾아드립니다.

개인정보보호

고객의 개인정보를 완벽하게 보호해 드립니다.

국내결혼

wed.co.kr

국제결혼

wed.kr

등록번호: 전남2008-023

신고번호: 전남2008-0003

☎ 061) 683-1000

꿈을 찾는 나비처럼

당신의 인연을 찾아드립니다.

결혼정보회사

웨드

여수 순천 광양상공회의소와 제1차 협의회 개최

여수고용노동지청, 지역상공회의소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지원 방안 모색에 나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지청장 장영조)은 여수상공회의소(회장 박용하), 순천상공회의소(회장 김종욱), 광양상공회의소(회장 이백구)와 함께 ‘양질의 일자리 창출 및 지원을 위한 제 1차 협의회’를 개최했다.

여수지청 관계자는 이번 협의회는 “지난 4월 4일 체결한 업무협약의 후속조치로서 업무협약서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경제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통해 전남동부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구인·구직의 미스매칭을 최소화하기로 참석자들 간에 뜻을 모았다”고 말했다.

특히 여수지청은 올해 주요 고용노동정책과 작년에 이은 일자리 못찾사(웃음을 찾는 사업주 만들기 사업) 확대 사업을 통해 현장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프로젝트를 안내하고 구인·구직자들에게 필



요한 취업 프로그램, 고용 장려금 제도 및 활성화 등에 대해 지역상공회의소의 협력을 요청했다.

이에 지역상공회의소도 “전남동부지역 양질의 일자리를 위해 일자

리 정보공유, 청년·여성·신중년 등을 위해 실시하는 각종 정부 정책에 대해 더욱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지청은 “오는 9월 2차 협

회를 개최할 예정이며, 필요시 수시로 협의회를 열어 이 지역 일자리 대책에 항상 고민하고 논의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김영주 기자

여수시노인복지관 치매극복 선도단체 지정

치매인식개선사업 참여, ‘치매 친화 문화 조성 앞장’

여수시는 여수시노인복지관을 치매극복 선도단체로 지정하고 현관전달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앞으로 여수시노인복지관은 치매인식개선사업에 참여하고 치매파트너로서 치매 친화적 문화 조성에도 앞장설 계획이다.

여수시는 구성원 전체가 치매파트너 교육을 이수한 기관 단체를 치매극복 선도기관?단체로 지정하고 있다.

지난 3월 28일에는 서강동 주민센터를 선도기관으로 지정했고, 5월 중에는 동여수노인복지관, 7월에는 진성여자고등학교에 현판을 전달할 예정이다.

김진우 관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내기 위해서는 치매극복이 필수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와 여수시에서 추진 중인 치매 정책이 원활히 실행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치매극복 선도단체와 함께 치매 걱정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치매안심도시 여수를



▲여수시노인복지관 치매극복 선도기관 현판 전달식에서 장기생 여수시 보건소장(오른쪽)과 김진우 여수시노인복지관장(왼쪽)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올 6월 준공을 목표로 치매안심센터를 신축 중이다. 여수시 신월로 794(봉강동)에 들어설 치매안심센터는 지상 3층 전체면적

887㎡ 규모로 검진실, 상담실, 기억쉼터, 가족카페, 인지강화프로그램실 등 치매환자와 가족을 위한 종합 복지 공간을 선보일 예정이다. 이규원 기자

여수시, ‘제474주년 이충무공 탄신제’ 봉행

28일 오전 충민사, 고재영 여수시 부시장 등 100여 명 참여

여수시가 28일 충민사에서 ‘제474주년 이충무공 탄신제’를 봉행했다.

시는 매년 이충무공의 탄신을 기념하고 호국충절 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례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제례는 취타대 연주와 함께 여수시 고재영 부시장의 의장으로 시작한다. 입장으로 좌우에는 수군 24명을 배치해 엄숙함을 더했다. 수군은 부

시장에게 예(禮)를 표하고 구호를 외친다. 이남 장인식 해양경찰서장, 정준호 여수항교 전교, 장전훈 충민사 원사는 각각 초헌관, 아헌관, 종헌관으로 제례에 참여했다.

제례 후에는 이순신 학교에서 성웅이순신가를 합창하고, 폐제 고지와 고재영 부시장의 퇴장으로 모든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충민사는 1601(선조34)년 왕명으로 건립된 이충무공 사액사당 제1호이자 국가사적 제381호다.

시 관계자는 “전라좌수영 본영인 여수에서 탄신제를 통해 이충무공의 구국정신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시민들에게 제례와 예(禮) 등 전통문화를 알릴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수시는 이충무공의 호국정신을 기리고 충효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



해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제53회 여수거북선축제’를 개최한다. 이번 축제는 이순신광장과 선소 일원에서 ‘진남호국의 얼, 만세 불빛이 되다’라는 주제로 펼쳐졌다.

최현탄 기자

사회재난 불철비산먼지 발생사업장 특별 합동점검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

남해안남중권발전협의회(회장 권오봉 여수시장)는 불철 건조기 대기 오염물질과 생활 주변 미세먼지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4월 29일부터 5월 17일까지 영호남 9개 시·군 합동 점검반(3개 반 15명 참여)을 편성하여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합동 점검은 미세먼지의 주요 발생요인인 비산먼지를 사전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 특별관리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련 지속 민원 발생 사업장 △최근 2년간 비산먼지 관련 위반사항 적

발 사업장 △ 최근 1년간 비산먼지 관련 점검 미실시 사업장 등 45개소를 점검한다.

점검 결과 주민 생활환경에 큰 영향이 없는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직접 시정조치를 하되, 고질적이고 불법적인 사항은 개선명령, 과태료 부과, 형사고발 등 관련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협의회 관계자는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포함되는 등 국가적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비산먼지를 사전 차단하는데 역점을 두고 관련 법규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비산먼지 발생 특별관리 건설공사장 △비산먼지 관련 지속 민원 발생 사업장 △최근 2년간 비산먼지 관련 위반사항 적

최현탄 기자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 2020년 9월까지 접수-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합니다.’

전라남도가 대통령소속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의 활동 기간 동안 억울한 일을 당한 도민들이 빠짐없이 진정해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진정 접수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

29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해 9월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군대에서 발생한 억울한 사망사고에 대해 유가족들과 목격자 등의 진정을 받아 공정하고 객관적 조사로 진실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해 유가족들이 명예를 회복하고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노력하고 있다.

진정 대상은 사망 원인이 명확하지 않다고 의심되는 소위 ‘의문사’

뿐만 아니라, 사고사·병사·자해 사망(자살) 등 군대에서 발생 가능한 모든 유형을 포함한다.

지난 2006~2009년에도 비슷한 목적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위원회’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1948년 11월 군 조직 설립 이래 모든 사망사고를 다룬다는 점에서 범위가 더욱 넓어졌다.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군 관련 조사관은 배제하고, 검찰과 경찰, 민간에서 채용한 조사관으로 위원회를 구성했다. 또한 2014년 관련법 개정으로 군 복무 중 구타 가혹행위 업무 과중 등 부대적인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의 책임을 인정해 ‘순직’ 결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오은진 기자

‘제53회 여수거북선축제’ 성공 개최 ‘총력’

5월 3일 통제영길놀이 구간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40분 차량통제

여수시 제53회 여수거북선축제 성공 개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24일 오후 시청 상황실에서 권오봉 시장 주재로 거북선축제 추진상황 최종 보고회를 열고 부서별 행사 준비를 꼼꼼히 살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여수시장, 부시장, 11개 국소단체장, 16개 관과소장 등 32명이 참여했다.

이날 행사는 (사)여수진남거북선축제보존회의 축제 준비상황 최종 보고, 여수시의 행정지원계획과 프로그램지원계획 보고, 문제점 토의 순으로 진행됐다.

주무부서인 관광과는 2020년 문화관광축제와 도 대표축제를 목표로 시민 참여와 축제의 질을 높이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축제 대표프로그램인 통제영 길놀이의 시민 참여를 높이기 위해 읍면동 길놀이 경연대회 시상금과 지원금을 대폭 인상했다.

이와 함께 길놀이 연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프로그램 구간을 서교동



로터리에서 이순신광장으로 축소했다.

거북선과 4차 산업을 연계한 화려한 드론 라이트 쇼를 도입해 축제 선진화를 꾀했다.

여수밤바다와 선소 패밀리 테마존을 배경으로 드론 100대가 거북선, 첨자진, 학익진, 이순신장군 등의 이미지를 표현했다.

또 주행사장을 이순신광장으로 옮기고 여천 선소일원에 모형등과 가정물을 전시해 축제장 운영의 내실을 다졌다.

특히 주행사장을 방문하지 못한 여천권 주민을 위해 선소에서 버스킹 공연, 드론 라이트 쇼, 각종 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이 눈에 띈다.

이밖에도 통제영길놀이 축제 행사를 해상수군출정식과 연계해 작품성을 높였고, 셔틀버스도 지난해

5대에서 10대로 늘렸다.

시는 축제 기간 교통정보를 사전 안내해 시민과 관광객의 양해와 협조를 구할 계획이다.

5월 3일에는 통제영길놀이 구간인 시민회관-서교로터리-이순신광장-중화동사거리로 오후 4시부터 저녁 8시 40분까지 차량 통제한다.

더불어 5월 3일부터 5일까지 주무대가 설치된 이순신광장의 소녀상부터 중앙동주민센터까지 이어지는 250m 도로도 통제한다.

여수시는 차량통제에 따른 방문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내버스 도착시간을 저녁 11시까지 연장한다.

축제장 주변 교통혼잡 예방을 위해 임시주차장과 공영주차장 20개소를 확보해 4469면의 주차 공간도 마련했다.

또 축제 기간 안전관리요원 2034명을 투입해 사고 예방에 나서고, 해상에는 어업지도선과 해경 경비함정, 해양구조대와 순찰정 등이 주변을 세심히 살핀다.

여수시는 경찰서, 해양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 안전한 축제를 만들 계획이다.

2019년 문화관광 육성축제이자 전라남도 대표축제인 ‘제53회 여수거북선축제’는 오는 5월 3일부터 5일까지 이순신광장과 선소 일원에서 ‘진남호국의 얼, 만세 불빛이 되다’라는 주제로 펼쳐진다.

이규원 기자



여수일보사 호루라기

살기 좋은 여수 만들기를 위하여
시민 여러분의 제보를 받습니다.

시민의 건강과 안전, 환경, 소비자 이익, 공정한 경쟁 등을 침해하는 행위를 제보해주세요.
권력형 비리부터 우리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생활일착 부패까지 다양한 제보를 기다립니다.
우리사회의 어두운 길목을 시민 스스로 호루라기를 불어 환하게 밝히는 등불이 됩시다.
제보자는 신원 비밀 보장해드립니다.

제보방법

전화

061-654-8885, 061-810-0011

메일

ysibtv@hanmail.net





우리 사회 관심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인생을 바친, 직업이 봉사인 사람



초대석

최 상 철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광주·전남협의회장



말이 아닌 행동으로 봉사하는 사람은 얼굴이 환하고 선한 기운이 나온다.
사회에 좋은 일을 하고 나눔을 실천한다는 것이 쉽지않은 않다.
바쁜 현대사회에서 직업을 봉사라고 생각하고 22년을 봉사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있다.
다음은 대한적십자사 봉사회 광주·전남 협의회 최상철 회장과와의 일문일답이다.

-대한적십자사 봉사회에서 어떤 봉사를 하신가요?

저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올해로 22년째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대한 적십자사는 전시에 군의 의료보조기관으로 부상자에 대한 구호사업을 기본업무로 하고, 평상시에는 각종 구호, 봉사, 인간보호, 건강증진활동, 친선협력, 보건, 혈액사업, 이산가족 상봉과 재결합 사업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재난재해 사고 시에도봉사를하시는거지요?
강원도 화재 때는 광주 전남팀 적십자회에서 봉사를 다녀왔고요

온 국민이 함께 아파했던 세월호 사고 때는 저희 여수협의회에서도 같이 가서 봉사와 위로를 하고 왔습니다.

2017년 여수교동에 위치한 수산시장 화재가 있었잖아요. 120개 점포 중에 116개 점포가 전소되는 큰 화재였는데요, 피해를 입어 힘든 상인들을 위해 13일 동안 세계 식사를 준비해드리는 봉사를 했었습니다.

-여수지구회장 6년을 하셨는데 가장 기억에



남는 봉사는 어떤 것인가요?

라오스 해외봉사를 3회 다녀온 것이 가장 기억에 납니다. 라오스에 있는 학교에 교실 지어주고, 컴퓨터도 설치해 주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어려운 사람이 있지만 이제 우리나라는 최소한 밥을 굶는 일은 없는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라오스는 아직도 굶어 죽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제가 65년생인데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도 교실바닥이 맨땅이지는 않았어요. 나무 바닥이었지요. 제가 다녀온 라오스 초등학교는 교실바닥이 그냥 흙바닥 진흙탕입니다.

저의 유년도 힘들고 가난했는데 그래도 맨발로 다니지는 않았거든요. 그 아이들이 맨발로 다니고 배고픔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 눈물이 납니다.

-봉사의 길은 어떻게 접하게 되셨나요?

집안이 가난하여 학교를 중학교만 다니고 고등학교 진학을 못했습니다.

중학교3학년 때 기술선생님께서 고등학교 진학할 형편이 안 된다는 걸 아시고 밥 벌여 먹고 살라고 전기기술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 기술선생님 성함은 기억나지 않지만 별명이 피카소선생님이셨어요. 그 피카소 선생님께서 저와 같은 가정형편 어려운 제자들을 위해 전기기술을 가르쳐주시는 것도 봉사였지요. 가정형편 어렵다고 혹시 나쁜 길로 빠질까봐 사랑과 나눔을 주신거지요. 그 때 봉사라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된 것 같아요.

중학교 졸업하고 피카소선생님의 전기기술 덕분에 취직하여 열심히 살았고 성인이 되어 고등학교도 다시 다녔습니다.

봉사의 길은 25년 전 의용소방대를 선포의 권유로 들어가서 지도 누군가를 위해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자 시작했습니다.

-봉사는 시간이있어야하는 거라고도하는데요

봉사를 시간 날 때 하다는 사람은 절대 봉사 못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봉사접수가 필요하거나 봉사사진이 필요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제 직업을 물으면 봉사가 직업이라



고 말합니다. 처음 봉사를 시작했을 때는 봉사하는 게 큰 자랑도 아니다 싶어 주위에 알리지도 않았고 먹고살기도 힘든데 봉사하고 다닌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아서 봉사활동을 몰래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엔 온 동네 알리려고 합니다. 봉사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계몽하고 그 때 그 때 시간을 조금씩 배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최상철 회장님께서 좋은 마음 정의로운 마음으로 묵묵히 봉사하신다고 말씀하시는데 주변에서 오해의 말씀도 들으셨다고요?

저에게 정치하려고 봉사를 운가축이 하는 거 아니라는 말씀을 많이 하였습니다.

저는 늘 한결같이 말합니다. 진정을 가지고 마음으로 우리나라 봉사를 하는 거지 정치에 뜻은 전혀 없습니다. 정치는 정치에 뜻이 있고 정치를 잘하는 분들이 하시면 되고 저는 봉사가 직업이니 앞으로도 봉사에만 전념할 것입니다. 아들은 4살부터 저를 따라 섬봉사를 다녔고 지금은 여수



지구협회 E세대 봉사회 회장(최정욱)으로 봉사하고 있고 딸(최은정)은 성인이 된 후부터 봉사회에 들어왔습니다. 아내 우안희씨는 가족들이 열심히 봉사를 할 수 있도록 밀어주고 사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우양희 여사님께서 어떤 사업으로 봉사지원 및가족 생계를이끌고 계시나요?

LG선물세트, CJ특판, 애경특판, 화장품 특판, 네슬러, 무궁화대리점 등 선물세트 전문 상호유통을 하고 있습니다. 야유회, 체육대회, 행사선물세트와 기념타월, 휴리닝 등 기타 특판전문점을 하는데 제가 봉사한다고 자리를 많이 비우기 때문에 혼자 고생이 많습니다. 항상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받은 많은 상은 모두 아내 우양희 여사의 내조 덕분이라고 늘 자랑합니다.

-섬봉사로 많이 다녔다고 하셨는데 훈훈한 미담도 많을 것 같아요

대우라도 섬봉사 1박2일 갔을 때 보봉 마을회관이나 노인당에서 1박을 하게 되는데 그 곳에서는 어느 어르신 태에서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어머님이 오랜만에 만난 아들같은 저희들에게 새벽 2시가 넘도록 당신이 살아온 세월과 자식자랑 등을 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희도 말쑤이 그리운 어머님께 네, 네 하면서 장단을 맞추고 듣다가 꾸벅꾸벅 졸기도 하였는데 새벽 2시가 넘자 도저히 못버티고 앉은채로 잠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어머님께서 아침 일찍 아침밥을 차려주셨어요. 김치와 된장국이었는데 참으로 맛있게 감사히 먹고 돌아오는데 눈물을 흐리는 어머님의 손을 잡고 함께 울었던 기억이 지금도 잔합니다.

말씀으로는 자식자랑을 하셨지만 명절 때도 찾아오지 않는 아들을 밤새 자랑하셨던 것이지요.

- 앞으로 광주전남 협의회 회장으로 어떤 계획이 있을까요?

라오스 해외봉사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싶

습니다. 지도 어려운 가정형편 때문에 학교 다니기 어려웠던 유년이 있었기에 학교봉사에 특별한 애착이 있습니다. 칠판도 만들어주고 아이들이 편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둘째로는 봉사의 인식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선배회원인 저희들이 진정성 있고 참다운 마음으로 봉사에 임하여 새로운 회원들을 올바른 봉사의 길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하고 싶습니다.

봉사는 미처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봉사에 미친 놈, 봉사가 직업인 한 사람으로 앞으로 많은 봉사자들과 좋은 길을 함께 하겠습니다.



드론 국가자격증

(정식명칭 : 초경량비행장치 무인멀티콥터 조종자 자격증)
필기시험부터 실기시험까지 1:1 교육생 맞춤형 경일 교육!
5월 중 국가자격 전문교육기관 인가예정! (연가시 필기시험 면제)

✂ ·드론 정비교육 ·드론 판매 및 수리
✂ ·드론 방제전문 ·일반 방제/친환경 방제
✂ ·항공/영상 촬영 ·드론 구동, 고형 각종 시설물 안전점검 촬영
✂ ·드론 현장교육 ·드론 출장교육 가능
CYNDRO·NE ·CERES10s (케레스) 대리점 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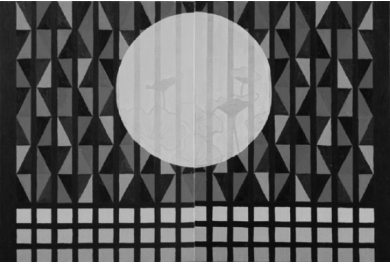
NAVER 교육 드론세상

061-686-8090

위치 : 여수 화장동 886-2 (무선담배인삼공사 뒤 공영주차장)

신병은의 문화예술칼럼

미술 사랑 협동조합 10개의 포즈 - 2편



#김찬식

감동을 기호화 하다

김찬식의 그림을 보면 수사의 진정한 의미를 만날 수 있다. 그가 어떻게 이미지와 의미를 확장시켜가고 있는지를 확연히 알 수 있다. 이번 작업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과거에 담긴 현대의 함의, 혹은 문화적 진화의 유전자Gene에 의한 이미지의 변용과 의미확장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사군자의 숨결, 연꽃과 호롱불, 꽃의 이미지, 창호 등의 외연적 오브제를 어떻게 무한 상

상력의 공간으로 확장시켜가고 있는가의 문제이다. 사군자를 비롯한 작은 꽃 한송이의 이미지와 의미를 어떻게 확장시켜가고 있는지 그의 작품 앞에서 보면 그동안 그가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아껴두었는지, 내성의 벽을 향해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었는지 알 수 있다. 추상이미지로의 확장법으로 독자를 그림 속으로 빨려 들게 하는 착각이 들만큼 이미지의 확장이 넓고 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김찬식의 그림에서 보이는 일상적이고 전통적인 오브제가 본능, 즉 밍의 근저가 된다면 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확장시켜가는 기술은 예술적 지능일 것이다. 예술은 본능과 지능이 알맞게 만날 때 그 기대치가 커지는 것이다. 사군자의 숨결, 전통문상, 십장생, 연꽃호롱불, 개나리, 개망초, 가을꽃의 이미지, 동백꽃이미지, 창호, 겨울밤이야기, 기억풍경 등으로 시간속의 여행을 하는가 하면 구상과 추상이 오버랩되어 무한 상상의 공간으로 전이될 뿐만 아니라, 그 의미 영역도 확장되고 있다.

예술가의 이야기는 감동을 기호화 하는 것이어야 한다. 김찬식은 오브제의 고정적인 이미지를 구상과 추상으로 관계지우고 통찰함으로써 본래적 의미를 변용하고 이를 유추와 연상으로 의미를 확장하고 있다. 비움과 채움의 변용과 전이, 그리고 전통에 담긴 현대적 함의, 전통과 현대, 과거와 현재가 어떻게 소통하고 교감하고 있는지를 바라보는 것이 곧 그의 작품을 감상하는 키워드가 될 것이다.



#이존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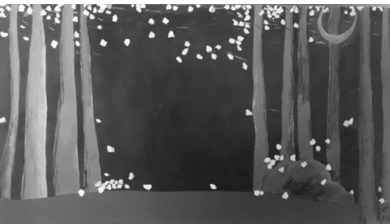
세상을 착하게 보는 동심적 창

좋은 생각이 좋은 그림을 만든다. 착한 마음으로 생각하고 착한 마음으로 그리면 착한 풍경이 된다. 그이겐 햇살 한 올 바람 한 울도 기분 좋게 산란하는 동심적 렌즈가 하나 더 있다. 답답한 일상을 산뜻한 색으로 풀어놓은 그 위로 유년의 맑은 풍경을 실루엣으로 올려, 너무 멀리 떠나 온 존재의 처음을 챙겨주는 동심적 응시,

그것을 통해 세상과 맑게 소통하려는 것이 이존립의 화법이다. 그림을 보기만 해도 행복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때론 절제되고 때로는 자유로운 붓의 리듬에 젖어든 아이디어를 향한 그림움의 정원이다. 그것은 나무와 새, 꽃과 나비가 화가의 동심적 렌즈에 포착된 정감의 깊이다.

그 정감의 깊이를 비집고 우리의 소중한 기억을 찾아가는 낮익은 출발이고 나를 열어 너를 열어주는 그림움의 은둔이다. 그의 그림 속을 살그머니 들여다보면 여자, 소년, 꽃, 나무, 자전거, 새, 별, 강아지, 벤치, 교회, 의자, 사슴, 고양이, 말, 휴식, 동심, 포근함, 사랑, 평화, 자유, 맑음, 음악, 열립, 여행, 사색, 새벽, 밤하늘 등 때묻지 않은 심상들이 신비롭고 자유롭게 유영을 하고 있다. 오브제들은 그가 즐겨 사용하는 녹색의 색채이 미지를 바탕으로 긴장된 삶의 순간들을 한순간에

투명한 사랑과 자유의 상징이미지로 풀어주는가 하면, 자기 밖에 있는 세계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게 하여 생의 바다에 안겨있는 삶의 원형적 무늬를 읽게 해 준다. 이것이 그의 조형법이자 화법이다. 참 좋다 그림 속 저 여자처럼 나도 한번, 비워낸 자리마다 몇 개의 말쑥임표를 달고 연초록 봄빛 풀꽃을 불면서 마침내 내 언어의 빛깔을 열고 싶다.



#이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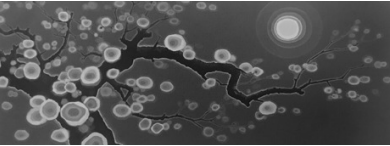
그녀의 달은 붉다.

봄일까 벚꽃일까 하늘 하늘 떨어지는 모습이 참 흡사 꽃비가 내리는 심상으로 오버랩된다. 꽃이 피고 지듯이 때가 되면 차고 때가 되면 기우는 달의 원형심상 앞에 나도 마구 풀어져 내리고 싶다. 그것은 그녀의 달이 생성과 소멸, 재생과 회생을 되풀이하는 생명의 근원적 상징어법에 닿아있기 때문이다. 달은 우리 예부터 우리 삶의 원

점이면서 생활과 생명의 기복과 리듬을 상징하고 있다. ‘희뿌연다, 어슴프레하다’는 달빛의 내포적 의미는 은은함과 부드러움, 포용하고 감싸주는 의미를 안고 있다. 그림달은 시각적으로는 차갑지만 우리의 정서로는 따스하고 포근하고 은근함을 느끼게 한다. 서로 어울리게 하고 녹아들고 스며들게 한다.

대립각을 세우는 햇빛과는 달리 달빛은 어둠과도 잘 어울리고 공존한다. 이집에서 이미경의 회화가 갖는 의도가 분명해진다. 낮익은 소재를 단순화하고 자유로이 순환시켜 원형과 원형에서 파생되는 기호와 상징을 통해 하늘, 땅, 바다, 나무를 통합시키고 순리적으로 공존하게 한다. 어떻게 보면 달은 그녀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로서의 그림달이다. 세상의 풍상을 다 겪은 후에 자신을 비워 세상

을 넉넉하게 안으면서, 가만가만하게 맑고 고운 빛으로 풀어내는 달, 혼하들 외롭고 고독한 달이라고 말하지만, 그녀는, 그녀의 달은 결코 외롭거나 고독하지 않다. 스스로를 풀어 나무의 잎이 되고 꽃이 되어주는 가슴 따스한 빛이기 때문이다. 근래에 화소로 등장하는 덩그렇게 놓인 의자 또한 그의 조형의도를 얹어주는 시적 오브제가 되기엔 충분하다. 의자마다 바람꽃이 핀다. 불수룩 정겹다 그녀의 그림 앞에 서면 참 포근해진다.



정정복

꿈꾸는 나무는 따뜻하고 행복한 그림이다.

자신의 꿈과 미래에 대한 깊은 성찰과 응시, 무지개빛 꿈을 꾸는 나무는 나이면서 너다.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 날마다 변신하는 삶을 향해 활짝 꿈을 펼쳐 놓는 그 나무는 사람들 닮은 나무다. 새의 보금자리는 물론 사람의 보금자리까지 되어주는 나무다.

그래서 그녀의 나무 앞에 서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꿈이 있는지를 알게 된다. 무지개빛 동심원을 동그랗게 동그랗게 피우는 나무다. 해와 달도 하늘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꿈은 먼 곳에 있는 아득한 거리가 아니라, 손을 내밀면 손 닿아 잡을 수 있는 가까운 거리임을 알게 된다.

나무의 꿈은 세상을 향해 열어놓은 아름다운 너와 나의 꿈이다. 상상 가득한 나무의 꿈은 때가 되면 늘 활짝 피어나는 삶에 대한 긍정이면서 믿음이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함께 공존하는 나무의 꽃이다. 가만히 들여다보면 나도 동동 피어올라 나무마다 온몸 가득 환하게 꿈의 꽃이 피어날 것 같아, 작품 앞에 은근히 발길을 두는 것이다. 바래지 않는 꿈, 그녀의 나무는 휴식과 위안, 희

망과 용기를 주는 나무다. 사람 속에 나무가 살고 나무속에 사람들이 사는, 자연과 사람과 꿈이 삼위일체가 되는 소통의 공간으로서의 화면 속, 날갯짓을 멈추지 않은 저 나무보다 더 행복한 꿈은 없다. 문득, 나의 꿈은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되묻는다 아,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잃어버린 꿈들을 챙겨 돌아오고 싶다.



#서국화

민화의 현대적 변주

민화는 궁중에서 서민들에 까지 조선사회의 전 계층에서 폭넓게 사랑을 받아온 예술이었지만, 주로 민중들이 생산하고 향유하던 예술이었다. 서민들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민속적 회화라는 뜻으로 민중 속에서 태어나고 민중을 위해 그려진 민중예술이었다. 비전문가가 그린 그림이라는 인식과 함께 존중받지 못한 것 또한 현실이었다. 오늘날에 와서 민화에 대한 관심과 그 위상이 많이 달라져 재평가와 함께 서서히 세계적인 이목

을 받으면서 새로운 미술의 아이콘으로 자리잡고 있다. 한국문화의 전통에서 민중의 애환과 해학이 깃들어 있는 민화를 빼고는 이야기가 될 수 없다. 구도, 원근 등 전통적인 화법에 얽매이지 않고 자유분방한 민중의 진솔한 생활감정이 그대로 표현되었다. 오늘날에 와서 민화는 전통그대로의 조형법에 현대적 감성을 입힌 그림들이 변주된다.

그녀의 민화 역시 전통적 회화성을 바탕으로 하고 있지만 그녀의 해석과 감성에 의해 전통을 넘어 창작 모티프로 변주된다. 서국화의 민화 역시 전통의 의미있는 창조다. 그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화소들은 삶의 근원, 고결함, 청정, 화복, 사랑 등, 부질없는 인간의 삶에 대한 성찰과 더불어 행복이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를 안내해주는데 손색이 없다. 그것이 민화의 화소들이 갖는 사회적 관계성이다. 전통을 바탕으로한 그녀의 낯선 변주는 시간의 순례라도 같다. 서국화의 변주는 민화가 갖는 이러한 특성을 바

탕으로 하되, 전통적 민화를 바탕으로 삶의 근원적 탐색을 위한 화소를 첨가한다. 그녀의 일월오봉(日月五峯)은 비너스를 넣어 에덴동산을 연상시키면서 삶의 원형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데 부족함이 없다. 민화는 그녀로 하여금 전통과 현대라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허물면서 민화가 갖는 인문학적인 의미를 되찾게 된다. 민화 속에 담긴 선조들의 인문학적 안목과 삶에 대한 지혜와 정신의 건강한 변주. 그래서 그녀의 그림 앞에 서면 마냥 편안해지고 행복해지는 것이다.

(유)지운산업

건설중기 임대 · 대여/토공 · 철콘
골재 도 · 소매/잔토처리

대표 이 수 한

전남 여수시 성산6길 54-1, 2층(화장동)
Mobile. 010-4030-8267
Tel.061)686-8267 Fax. 061)686-8268
E-mail. lk6516786@naver.com

여수시 흉물스러운 가로수 전정 작업, 예산부족 때문?

현장책임자 없이 전정 작업, 감독공무원 관리체계 허술 미세먼지 많은 4월 5월, 몸뚱어리만 덜렁 남아있는 가로수길

여수시 도심 가로수 전정 작업이 지나치게 훼손되어 흉물스러운 형태가 문제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작업 현장에서 특별시방서를 지키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여수시민 오 모씨(50대)는 “주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미세먼지·황사 등으로 인한 생활 속 고통을 감

소시키기 위한 여수시의 가로수 정리 정책이 많이 아쉽다. 여수는 관광도시로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는 도시다. 흉물스러운 가로수가 부끄럽다.”라고 말했고, 신 모씨(60대)는 “나무가 불쌍해서 차마 볼 수가 없다.”고 제보를 해왔다.

제보가 들어온 구간은 은행나무

와 포플러나무가 있는 중앙로, 충무로, 신월로, 등 6개 노선 약 7km의 거리다.

시민제보를 받고 현장취재(19일) 중 마침 중화동 일대에서 전정 작업 중인 (주) 명00조경 작업자들을 만나 사진 촬영 취재 중 시장이 인정하는 조정전문가가 현장에 없음을 알게 되었다.

특별시방서에 따르면, 전지 전정 작업은 반듯이 현장대리인 임의하에 실시하여야 함이 명시되어 있다. 현장대리인은 산림청 가로수기술자 교육을 이수한 조정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말한다.

이에 대해 산림과 관계자는 “현장에 현장대리인이 없었던 것은 사실이다. 주의를 주는 것 외에는 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말하며 “상인들이 간판을 가린다는 민원이 쇄도하고 또한 예산 부족으로 인하

여 3-4년 만에 전정작업을 하기에 심하게 전정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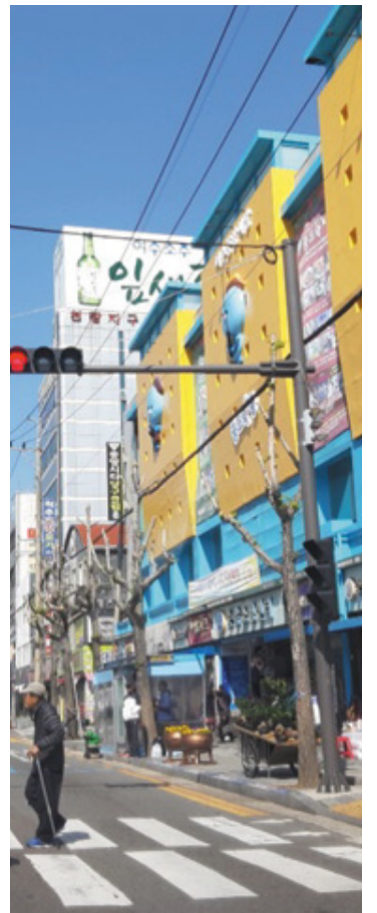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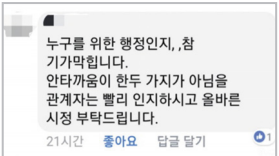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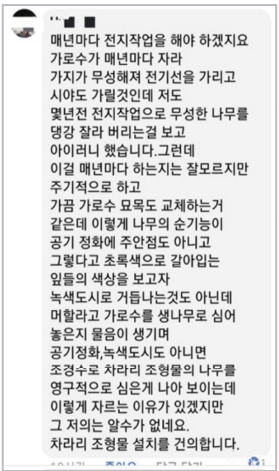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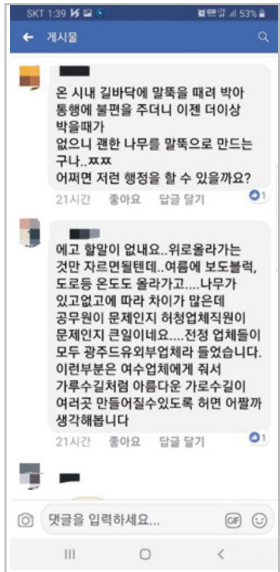
가로수는 아름다운 거리 조경을 기본으로 여름에는 그늘을 주어 시원하게 해주고 자동차의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감소 효과를 내고 있다.

직경 16cm 느티나무 한 그루가 성인 1명이 2개월 간 흡수할 수 있는 산소를 공급하고 공기청정기 5배의 효과를 내고 있다. 가로수는 대기정화능력이 탁월한 만큼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에 감소의 한 가지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한 그루의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가꾸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예산 부족을 이유로 도로변 가지치기 작업이 흉물스러운 수밖에 없다는 여수시의 행정이 아쉽다.

글 최현란 기자, 사진 김영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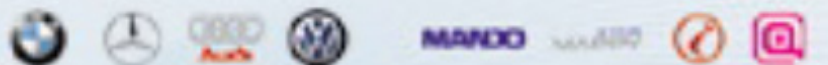
KU 보성자동차
Bosung used car firm

MM (주)모모렌터카 서교지점
MOMO Car Rental Co.,Ltd.

B 보성테크 네비게이션
Bosung Tech 블랙박스

S 서교주차장
Seo Gyo Parking lot

대표 문경일 010-9450-7529



본점 전남 여수시 서교1길 6 (서교동 658)
TEL: 061)686-7301 FAX: 061)686-7303

인터넷 www.bscar.kr **E-mail** moonkyungil@naver.com

봉산지점 전남 여수시 봉산새철2길 1
TEL: 061) 686-7302

계좌번호 농협 302-9450-7529-41 (예금주: 문경일)